

PONY CHUNG FOUNDATION ANNUAL REPORT 2014

55, Hangang-daero 23-gil, Yongsan-gu, Seoul, 140-780 Republic of Korea

Tel. 82-2-2008-9079

[www.ponychung.org](http://www.ponychung.org)

P O N Y  
ANNUAL REPORT 2014  
C H U N G  
F O U N D A T I O N

# INNOVATION IS THE FUTURE

## 혁신이 곧 미래다



###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아가다

1966년 1월, 태국의 남단 파타니에서 나라티왓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시 공사는 대한민국의 현대건설, 현장 지휘자는 현대건설 태국 초대 지점장이었던 30대 후반의 청년이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를 이겨내고, 황폐한 불모의 터를 갈아엎어 고속도로로 완공하기까지 넘어야 했던 고비가 수십 차례. 하지만 청년은 멈추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8년 2월, 대한민국 건설 역사에 길이 남을 최초의 해외 진출 공사가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선진 16개국 29개 업체와 겨뤄 공사를 수주한지 28개월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은 이때 쌓은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대한민국이 해외건설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 강한 도전정신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다

1973년 국산 자동차 개발을 위해 타진했던 포드와의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경쟁사인 신진자동차는 GM과의 합작이라는 궤를 일구어냈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난관에 부딪칠 때마다 이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았던 40대의 젊은 CEO는, 좁은 한국 무대를 뛰어넘어 넓은 세계 무대에서 살아남고야 말겠다는 강한 생존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는 곧바로 숏한 반대를 무릅쓰고 독자적인 고유 모델 개발에 들어갔고, 1974년 제55회 토리노 국제 자동차박람회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뒤가 짧은 해치백 스타일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세계 언론의 호평을 이끌어낸 이 차의 이름은 '포니'. 대한민국 최초의 고유 모델이었습니다. 또한 '포니'의 탄생은 우리나라를 세계 16번째 자체 차량 생산국 대열에 진입시켰고 사람들은 그를 '포니 정'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 미래는 도전하고 개척하는 것이다

1986년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미국 산업계의 숨은 영웅'으로 이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1995년 미국 <오토모티브 뉴스>지 또한 '오토모티브 올스타'로 이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성공적인 미국 진출이 가져다 준 값진 성과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전 세계를 누비며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쳤고, 바쁜 일정 중에도 그때 그때의 단상이나 기억해야 할 일들을 메모로 남겼습니다. 지독한 '메모광'이었던 그는, 높은 직위에 오른 후에도 늘 성실했고 술선수범했으며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산업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개척하는 것이다'라는 신념을 평생에 걸쳐 펼쳐 보였던 위대한 거인.

**그의 이름은 정.세.영.입니다.**

### Moving forward without looking back

In January 1966, construction got underway on a highway in the south of Thailand that would run from Pattani to Narathiwat. Hyundai E&C was hired to supervise construction of the road, and the man heading up the company's first Thai branch site was a young man in his late 30s. There were countless obstacles to overcome during construction of the highway, not to mention the hot, humid weather. Nonetheless, this confident young man never gave up and looked back; he just kept moving forward. In February 1968, Hyundai E&C became the first Korean company to successfully complete an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 It had been 28 months since Hyundai had won the contract order after competing against 29 companies from 16 countries. Back then, Hyundai E&C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building Korea's Gyeongbu Expressway. Part of the reason it could accomplish this had to do with its success in Thailand, which ultimately became a driving force for Korea to grow as a leader in overseas construction.

### Turning challenges into opportunities with a strong pioneer spirit

In 1973, talks about developing Korean automobiles between Hyundai Motor Company and Ford collapsed. To make matters worse, Hyundai's competitor, Sinjin Automobiles, succeeded in signing a deal with GM. Things looked bleak for Hyundai, but the young CEO, who was only in his 40s, always tried to turn adversity into opportunity with the resolve necessary to survive in the global market. Despite countless objections, he set out to develop a unique car model for the company right away, and had Hyundai take part in the 55th Turin International Motor Fair in 1974. With its unique design and small hatchback body style, the car earned favorable reviews from the press worldwide. They called it the Pony, and it was Korea's first independently developed automobile, making Korea the 16th country worldwide to now have its own auto industry.

### The future has limitless potential and should be explored

In 1986, *The New York Times* called him a "hidden hero" of the American automobile industry. In 1995, *Automotive News* also selected this person as an "automotive all-star." These accolades were the result of the man who had ensured Hyundai Motor's successful entry into the U.S. automobile market. This same man worked hard all around the world to exp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Despite his busy schedule, he jotted down thoughts and ideas as they came to him, no matter where he was or what he was doing. Even after he soared up the ranks in the company, he remained as hard-working as he had been at the beginning of his career. In fact, he was constantly pioneering new roads not just for the automotive industry, but for Korea and its future as well. He was indeed a great man who once said, "The future is not something to wait around for, but something that has limitless potential and should be explored."

**His name was Chung Se-yung.**



## 세계로, 미래로 포니정의 꿈과 희망을 이어갑니다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위대한 업적은 늘 큰 위험을 감수한 후에 이루어져왔다고 합니다. 정세영 명예회장 역시 모두가 불가능을 말할 때 가능성을 믿고 거침 없이 나아가 마침내 큰 꿈을 이룬 혁신가였습니다. 굳건한 의지로 우리나라 최초의 고유모델인 포니 개발에 성공한 그는 우리나라 자동차의 국산화와 수출의 길을 열어 세계화를 이끌며 오늘날 세계 5대 자동차 강국으로 진입하는데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정세영 명예회장이 걸어온 길은 곧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눈부신 성장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결과보다는 도전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중시했던 정세영 명예회장은 늘 근면과 성실을 강조하며 정도 경영의 철학과 신념을 지켜왔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건 원칙과 소신으로 일관한 그는 일생을 통해 바르고 당당한 과정이 결국 눈부신 성취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포니정 재단은 이 시대의 진정한 글로벌 리더인 정세영 명예회장의 업적을 기리고 소중한 뜻을 계승하고자 2005년에 설립됐습니다. 포니정 재단은 더 아름답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포니정 혁신상을 제정해 창조적인 사고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 개인이나 단체를 포상함으로써 모두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탁월한 업적을 남긴 8팀의 혁신가들을 발굴해 우리 사회에 혁신의 가치를 널리 전파하는데 앞장서왔습니다.

또한 기업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인재양성을 강조했던 정세영 명예회장의 뜻을 이어 학술지원 사업과 장학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국가 발전의 밑거름이 되지만 그 동안 지원이 미비했던 기초학문 분야를 적극 지원하고, 미래의 주역인 국내외 우수 인재들이 좌절하지 않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9년간 정세영 명예회장의 뜻을 흔들림 없이 계승하려는 재단의 의지는 더욱 깊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려 이제는 사회 곳곳에서 하나 둘 크고 작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신임 이사장으로서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개척하는 것'이라는 정세영 명예회장의 원칙과 소신이 앞으로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니정 재단 이사장 김철수**

## For the world and for the future we continue spreading Pony Chung's dreams and philosophy

According to Herodotus, considered by many the Father of History, great achievements have always been made after people took big risks. Pony Chung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 was also an innovator who boldly moved forward, believing in possibility when everyone mentioned impossibility. In the end, he realized his greatest dreams. With his strong willpower, he successfully developed the Hyundai Pony, Korea's first independently developed car and paved the way for Korea to produce and export cars, which laid the foundation for the country to become one of the five strongest automakers in the world today. As such, Chung's life reflects the brilliant growth process of the Korean automotive industry.

While valuing the pioneering process and making efforts more than the result itself, Chung Se-yung always emphasized hard work and diligence, and never wavered from his belief in jeongdo (righteous) management. Throughout his life, Chung showed that the righteous and proud process of doing anything could bring about brilliant achievements.

The Pony Chung Foundation was established in 2005 in order to celebrate Chung Se-yung's achievements and inherit his valuable ideas. Since then, the foundation has run various programs to create a better society. To begin, we have supported people and organizations that are bringing about positive changes in society through their creative thoughts. To date, we have singled out eight innovators with internationally renowned achievement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diplomacy, economics, society, and culture, and taken the initiative to spread the value of innovation throughout society.

In addition, the foundation has been actively working on academic support and scholarship programs following Pony Chung's will to continue R&D and foster talents for the future of companies. In doing so, we have supported scholars in fundamental studies which are important to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 but which have traditionally not enjoyed as much support, while helping talented people in Korea and abroad fully pursue their dreams through scholarships.

For the past nine years, the foundation's strong will to inherit Pony Chung's legacy has taken deep root. Today, we are seeing the fruits of our projects all around us. As the newly appointed chairman, I will do my utmost to continue carrying out Chung Se-yung's legacy and his belief that the future is what we make of it.

**Kim Chul-su**

Chairman, Pony Chung Foundation

# BOARD MEMBERS

## 포니정 재단 이사진

포니정의 자취를 따라, 우리는 함께 호흡하고 소통합니다. 더 풍요로운 사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합니다.

늘 깨어 있음으로. - 정세영 명예회장 5주기 추모집 〈꿈과 희망을 남긴 선구자 포니정 그의 꿈은 계속된다〉中

**Just as Pony Chung did in his own life, we work hard for a better, more enriched society, and a better future than today.** - from *The Pioneer Pony Chung's Dream Goes On*, a book marking the 5th anniversary of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s death



이사장 **김철수** Chairman **Kim Chul-su**

- 무역투자연구원 이사장
- 前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차장
- 前 상공자원부 장관
- 前 세종대학교 총장
- Chairman of the Board at the Institute for Trade & Investment
- Former Secretary General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 Former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Former President of Sejong University



이사 **정몽규** Director **Chung Mong-gyu**

- 현대산업개발 회장
- 대한축구협회 회장
- 前 현대자동차 회장
- Chairman of Hyundai Development Company
- President of the Korea Football Association
- Former Chairman of Hyundai-Kia Motors



이사 **이양섭** Director **Lee Yang-sup**

- 엠에스오토텍, 명신 회장
- 前 현대자동차 사장
- Chairman of MS Autotech & Myoungshin
- Former President of Hyundai Motor Company

이사 **주선희** Director **Choo Sun-hoe**

-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장
- 前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재판관
- Chairman of Alumni Association, Korea University
- Former Acting Chief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이사 **공병호** Director **Gong Byeong-ho**

-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
- 前 재단법인 자유기업센터 초대소장
- 前 인티즌 대표이사
- President of Gong Institute
- Former Director of the Center for Free Enterprise
- Former CEO of Intizen



감사 **조성호** Auditor **Cho Seong-ho**

-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前 발텍컨설팅 사장
- Professor at Hongik University's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 Former President of Valtech Consulting



감사 **류용호** Auditor **Ryu Yong-ho**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前 서울행정법원 판사
- Lawyer at Kim & Chang
- Former Seoul Administrative Court Judge





# THE PONY CHUNG

## 포니정 혁신상

# INNOVATION AWARD

반년 만에 빈 터에 공장을 짓고 첫 차 코티나를 생산했을 때에도, 버스업자들 앞에 자존심을 내던지고 큰절을 할 때에도, 미숙한 판매 전략과 경제 불황으로 삶의 의지를 잃었을 때에도 **목이 뚫으므로 스스로 물을 찾았고 비움으로써 스스로 채워갔다. 포니 엑셀 30만대 생산공장 건설, 디젤엔진공장과 기어공장 준공에 이어 최첨단 30만대 승용차 공장인 아산공장과 세계 최대 상용차공장인 전주공장 건립도 정공법으로 세상에 던진 승부수였다.**

- 정세영 명예회장 5주기 추모집 <꿈과 희망을 남긴 선구자 포니정 그의 꿈은 계속된다> 中

He produced the first car, the Cortina, after building a plant in just half a year. After putting his pride aside, he had to beg people in the bus business to buy Hyundai Motor's vehicles. He lost the will to go on at one point because of poor sales strategies and an economic depression. Still, whenever he faced challenges he always tried searching for solutions on his own. Then he made the bold decision to build a plant which could produce 300,000 Pony Excels a year after which he completed work on diesel engine and automotive gear factories. The cutting-edge Asan plant eventually produced 300,000 automobiles annually, with the world's largest commercial automobile plant located in Jeonju.

- from *The Pioneer Pony Chung's Dream Goes On*, a book marking the 5<sup>th</sup> anniversary of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s death

### 불가능한 꿈은 없다

혁신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낡은 고정관념을 깨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혁신은 꿈을 현실로 만들려는 시도이며, 과거의 실패에 연연하기보다 미래에 다가올 성공을 가슴 속에 품는 일입니다. 때로는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야 하는 일이고, 어느 누구도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는 외로운 길이기도 합니다. 혁신은 길고도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완성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외로운 싸움의 동반자는 오직 창의적 사고와 불굴의 의지, 과감한 도전정신뿐입니다.

### 대한민국을 빛낸 혁신의 주역

포니정 정세영 명예회장은 이 같은 싸움을 평생에 걸쳐 지속해온 선구자입니다. 현대건설 태국 초대

지점장으로서 대한민국 최초의 해외 진출 공사로 기록된 태국 파타나나라티왓 고속도로 건설을 진두지휘 했고, 경부고속도로 건설, 현대자동차 설립, 울산공장 설립 등 중요한 순간마다 늘 현장을 지키며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이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았으며, 앞선 해안으로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해 나갔습니다.

신진자동차가 GM과 합작했을 당시, 현대자동차는 포드와의 합작이 물거품이 됐지만, 실망하기보다 한국시장뿐 아니라 수출시장까지 염두에 둔 고유모델 포니의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결국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꿈은 꿈일 뿐’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뒤집고, 대한민국을 16번째 자동차공업국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포니는 대한민국의 첫 고유모델인 동시에, ‘세계 5대 자동차 강국을 향한 돛’을 활짝 펴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정

세영 명예회장의 과감한 혁신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독자엔진 개발에 착수했고, 자동차의 본고장 미국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수 없는 꿈이라 여겼던 모든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세영 명예회장의 혁신적 사고와 남다른 실행력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 혁신의 철학을 이어받다

혁신은 필연적으로 위험을 담보로 합니다. 그러나 위험하다고 해서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난관과 역경이 닥친다 해도 반드시 이겨내리란 각오를 다지며 하나하나 실행해나갈 때 혁신은 가능해집니다. 포니정 혁신상은 혁신에 관한 정세영 명예회장의 철학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상입니다. 또한 정세영 명예회장의 혁신적 사고와 도전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

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끈 최고의 혁신가들에게 바치는 영예로운 헌사인 포니정 혁신상. 포니정 재단은 지난 2006년 4월 포니정 혁신상의 기틀을 마련한 이후, 이듬해부터 매년 불굴의 도전정신, 혁신적 창조정신으로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혹은 단체에게 포니정 혁신상을 수여해 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또 우리 사회에 혁신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널리 전파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혁신가들을 발굴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 단 하나의 영예로운 이름

포니정 혁신상은 지난 8년간 정세영 명예회장의 철학을 계승하며 최고 권위의 상으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포니정 혁신상의 권위는 공정하고 엄격한 선정과정, 그리고 역대 수상자의 면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에서 2월까지 재단 임원진, 역대 수상자, 역대 심사위원, 국내외 저명인사 및 기관, 단체장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은 후,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 중 재단 이사장(심사위원장 겸직)이 위촉한 10인 이내의 심사위원회가 각 후보자의 자격 및 업적을 심사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수상자는 매년 4월 중 발표되며 시상식은 매년 5월~7월 중 실시됩니다.

최종 수상자들은 1억원의 상금과 상패뿐 아니라, 포니정 혁신상 수상자라는 영예로운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제1회 수상자인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필두로, 교육 개혁에 앞장선 서남표 KAIST 총장, 아시아 빈곤층에 교육의 중요성과 개혁정신을 전파해온 (사)가나농군운동세계본부, 입양에 대한 뿌리깊은 편견을 깬 신애라·차인표 부부, 경제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캠브리지대 장하준 교수,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앱 카카오톡으로 IT분야의 혁신을 이끈 김범수 (주)카카오톡 이사회 의장 그리고 창조적인 여성 법학자 석지영 하버드 로스쿨 종신 교수 등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각 분야의 리더들, 우리 사회에 혁신의 가치를 널리 전파하는 데 앞장서온 각 분야의 선구자들이 포니정 혁신상의 주인공인 셈입니다. 포니정 재단은 앞으로도 포니정 혁신상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권위의 상으로 성장,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No dream is too big

Innovation is about creating something out of nothing, and changing what is impossible into what is possible. It's also about creating something

that will surprise the world, breaking the mold and existing stereotypes. Innovation is an attempt to turn dreams into reality, and to envision future success rather than think of past failures. Sometimes it means moving forward despite everyone else's opposition, a lonely road where success is not guaranteed. Innovation is an internal fight within oneself that is only completed after a long, arduous process. This lonely fight is accompanied by creativity, an indomitable will, and a bold, revolutionary spirit.

### Innovation that brought great honor to Korea

Honorary Chairman Pony Chung (Chung Se-yung) was a pioneer who carried out this internal fight his whole life. As the first director of Hyundai E&C's Thailand branch, he was responsible for building the Pattani-Narathiwat Highway, the first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 carried out by a Korean company. He went on to do other great things, like build Korea's Gyeongbu Expressway and establish the Hyundai Motor Company and its first plant in Ulsan. He consistently turned adversity into opportunity, and made his vision of the future a reality on a constant basis. While Sinjin Automobiles collaborated with GM, Hyundai Motor Company failed to collaborate with Ford. Still, Chung was not disappointed and used it as a chance to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the company's unique model. Chung had exports in mind—and in the end this spelled success. He overcame the pessimistic notion that a dream is just a dream, and made Korea the world's 16th country with an automotive industry. The Pony was the first all-Korean car model and the starting point of transforming Korea into one of the world's five strongest automobile producing countries. Chung's brave innovation did not stop there, though. Soon after this, he set out to develop an engine single-handedly, and eventually succeeded in entering the U.S. market. What many people thought was impossible had become a reality. Honorary Chairman Chung's innovative thinking and extraordinary executive abilities were the driving force for all of these achievements.

### Inheriting a philosophy of innovation

Innovation necessarily means taking risks. However, if we are afraid of change because of risk, we will never move forward. Innovation is possible when

we carry out our plans bit by bit, determined to overcome any hardships along the way. The Pony Chung Innovation Award is a testament to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s philosophy about innovation, and celebrates his innovative thinking and pioneering spirit. The award is a tribute to contemporary innovators who bring positive changes to society. The Pony Chung Foundation gave out the first Pony Chung Innovation Award in April 2006. It is now awarded annually to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that hav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Korea with their visionary spirit and innovative creativity. The award is designed to promote positive changes and growth in Korean society by singling out some of the greatest innovators of our time.

### The one and only honorable name

The Pony Chung Innovation Award has established itself as the most prestigious award in Korea over the last eight years. Every January and February, nominees are recommended by the foundation's directors, former awardees, award judges, and notable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in Korea and overseas. The winner of the award is selected by a judging committee consisting of fewer than 10 professionals appointed by the Chief Director (chairman of the judging committee) of the foundation. The winner is announced in April, and an awards ceremony is held sometime between May and July.

Each winner receives KRW 100 million and a medal, as well as the title of Pony Chung Innovation Award winner. Past recipients include Un Secretary General Ban Ki-moon, the president of KAIST, Suh Nam-pyo, a man who helped revolutionize education, the World Headquarters of the Canaan Farmers Movement, which has promoted the importance of education and a pioneering spirit among the poor in Asia, the couple Cha In-pyo and Shin Ae-ra, who helped Koreans overcome their deep-rooted prejudice against adoption, the internationally renowned economist Ha-joon Chang from Cambridge University, Chairman Kim Beom-su of Kakao, whose innovation in the field of IT with the smartphone-based application Kakao talk has taken Korea by storm, and the creative legal expert Jeannie C. Suk from Harvard law school. The foundation will continue to do its utmost so that the award can grow into a world-class award.



# I always aim to achieve all my dreams.

새로운 꿈을 향해 힘차게 도전합니다

Yuna Kim, 2010 Vancouver Winter Olympics Gold Medalist

제 8회 포니정 혁신상 수상자인 김연아는 도전과 희망의 아이콘입니다. 피겨 스케이팅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불굴의 의지로 세계 피겨 스케이팅 역사를 새롭게 쓴 그녀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도 큰 공을 세우며 민간 스포츠 외교관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녀의 도전과 열정은 우리 사회에 '혁신'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The 8th Pony Chung Innovation Award recipient, Yuna Kim, is a true icon of both hope and a pioneering spirit. Kim singlehandedly put Korea on the world figure skating map and excelled on the international stage with her indomitable willpower. She also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helping secure Korea's successful bid to host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This was proof she has the ability to also play a positive role as a diplomat in the field of sports. Her pioneering efforts and passion have made innovation a reality throughout our society.



## 피겨 스케이팅으로 이뤄낸 놀라운 변화

“포니정 혁신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제게 격려와 축복의 의미로 여기로, 앞으로 우리나라 스포츠와 피겨 스케이팅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곱 살 때 처음 스케이팅을 접한 김연아는 초등학교 때부터 각종 국내 대회에서 우승하며 일찌감치 재능을 보였다. 당시 우리나라는 마음 놓고 연습할 빙상경기장이 없어 하루에 두 세 곳을 돌아다니며 훈련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한 결과, 세계 정상에 우뚝 서며 피겨 스케이팅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큰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냈다.

“저에게 ‘혁신’이란 ‘새로운 도전’을 뜻합니다. 단

지 남은 것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세계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세계 1위가 되기 위해 피겨 선진국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피겨 스케이팅 프로그램을 익히고 체력과 체형을 유지하는 등 모든 노력이 제게는 혁신의 과정이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김연아는 수많은 세계 대회에 참가해 기록 없는 높은 점프력과 테크닉 그리고 풍부한 감성표현 등 자신만의 장점을 살려 신기록을 달성해 나갔다. 2009년 세계 피겨 선수권대회에서 쇼트 프로그램과 프리 스케이팅 합계 점수 207.71점을 기록하며 여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200점을 돌파한 그녀는 특히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합계 점수 228.56점을 받으며 세계 신기록을 세웠고 이 기록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여자 선수로는 최초로 동계올림픽, 세계선수권, 4대륙선수권,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모두 우승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으며, 출

전했던 모든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해 ‘올포디움(All Podium)’의 쾌거를 이뤄냈다. 국내 피겨 스케이팅 분야의 선구자인 그녀의 눈부신 성장은,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금메달은 단지 꿈일 뿐이라는 기존의 생각을 바꿔 놓았으며 자신감과 도전 의식을 심어줬다. 뿐만 아니라 2010년에는 타임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으로 선정된 그녀는 유스 올림픽 홍보대사로도 맹활약하며 전세계 어린 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고 있다.

## 스포츠 외교관으로서의 가능성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해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해 부담이 됐지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어요. 마지막에 자크 로제 위원장님이 ‘평창’이라고 발표할 때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스럽고 보람됐죠. 동시에 스포츠 외교의 중요성과 가능성도 느꼈어요.”

평창올림픽 유치 당시,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세계를 감동시켰던 김연아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해 큰 관심을 끌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그녀는 자신을 그 동안 한국이 동계스포츠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자 살아있는 유산이라고 소개하며 세계 젊은 세대들도 이런 성공과 성취의 가능성을 누려야 한다고 호소해 IOC 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또한 스포츠 외교사절단으로서 그녀는 소외된 지역의 젊은 세대에게 올림픽의 진정한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평창에 동계올림픽이 유치되어야 한다는 글을 언론에 기고해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하며 김연아는 스포츠 외교관으로서의 실력과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인 모란장을 수여 받았다.

## 새로운 꿈, 새로운 시작

“앞으로는 스포츠인으로서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이를 위해 스포츠경영, 마케팅 등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공부할 계획입니다.”

지난 소치 올림픽 출전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 자격을 갖춘 김연아는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하게 진로를 모색 중이다. 우선 올 가을 고려대 대학원에서 체육학을 공부하고, 선수시절부터 해왔던 유니세프 국제친선대사, 스페셜올림픽홍보대사,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집행위원 등의 역할도 계속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피겨 스케이팅을 통해 우리나라를 널리 알리고 동시에 후배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우리나라 자동차를 보면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요. 우리 기술로 자동차를 만들어 해외로 수출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뤄낸 정세영 명예회장님처럼, 저도 새로운 꿈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 Amazing changes made through figure skating

“I’m honored to be selected as the recipient of the Pony Chung Innovation Award. I feel this is such a respected award, but it’s also a blessing and a nod of encouragement for me as I embark on a new career as my professional one draws to a close. I will do my very best to assist Korean sports in any way I can in the future. This of course includes figure skating. Thank you so much.”

Kim started skating at 5 (7 in Korean age), and while still in elementary school was already winning many

figure skating competitions in Korea. In those days, there were not many ice rinks in Korea. Of the few which did exist, most were public, so she had to move around to different ice surfaces in a single day to train. However, she never gave up and continued to pursue her dream. Eventually, she would go on to become a world and Olympic champion in figure skating, bringing about significant change and innovation to the sport in Korea.

“For me, innovation means pioneering something new. It’s not simply about replacing something old, but creating something new so that I can compete with the world’s very best athletes. Every effort I made to become the world champion—training in developed countries, learning new figure skating programs, and maintaining a high level of strength and health—was a part of the process of innovation for me.”

For the past 18 years, Yuna Kim has participated in various international competitions. She consistently carries out extraordinary jumps, shows incredible technique, and heartfelt expression. At the 2009 World Championships, she scored a total of 207.71 points in the short program and free skating program, becoming the first female skater to ever surpass 200 points. Kim went on to set 11 other world records in the short program, free skating program, and in total points. At the 2010 Vancouver Winter Olympics, Kim set a world record by scoring 228.56 overall. She is currently still the record holder. She also achieved a veritable ‘Grand Slam’ by winning the Olympic Winter Games, World Championships, Four Continents Championships, and Grand Prix Final, the first time a female skater had ever done this. In addition, throughout her career she never finished a competition off the podium. Her brilliant growth as a pioneer in Korean figure skating has changed people’s notion of the term ‘world champion’, while Koreans now believe Olympic gold medals are achievable for them in any sport. Indeed, she has imbued Korean society with a can-do, pioneering spirit. In 2010, Kim was selected as one of TIME magazine’s 100 most influential people. She also works as an honorary ambassador of the Youth Olympic Games, presenting hope for young athletes around the world.

## Kim’s potential as a sports diplomat

“It was stressful attending the IOC Assembly on behalf of Korea to bid for hosting the PyeongChang 2018 Olympic Winter Games. Still, I did my very best

for the cause. It was extremely moving and made me want to cry when President Jacques Rogge finally announced PyeongChang as the winner. This is when I also realized the importance and potential of sports diplomacy.”

At that time, her attendance as a Korean delegation member at the IOC Assembly was big news because she had impressed the whole world at the Vancouver Winter Olympics in 2010. In her presentation, she seized the hearts of IOC members by saying that she is an example and a living legacy of the Korean government’s efforts for winter sports and that young people around the world deserve opportunities for such success and achievement. She also wrote a piece for the press, insisting that PyeongChang should host the Winter Olympics in order to spread the true value of the Olympic Games for youth in the world’s most isolated regions. Through such diverse activities, Yuna Kim displayed her incredible ability as a sports diplomat. Later, she received the Order of Civil Merit (Peony Medal) from the Korean government for her contribution to PyeongChang’s winning the right to host the Winter Olympics.

## A new dream, a new start

“As an athlete myself, I would like to be of help for the next generation of athletes. To this end, I’m planning to first study various areas related to sports, such as sports management and marketing.”

After participating at the Sochi 2014 Winter Olympic Games, Kim qualified to become an athlete member of the IOC, but she is keeping her options open for right now. She’ll begin by starting her graduate studies in sports education at Korea University, while also continuing to serve as a UNICEF International Goodwill Ambassador and honorary ambassador of the Special Olympics, as well as a member of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2018 PyeongChang Olympic Winter Games Organizing Committee. In addition, by promoting Korea through figure skating, helping its next generation of skaters pursue their dreams, she is going to play a role in making people’s dreams come true.

“I’m very proud when I see Korean cars abroad. Like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 who never gave up his dream to export automobiles though our independent technology, I will move forward to pursue my new dreams even if there might be any difficulties ahead.”



# ACADEMIC GRANTS

## 학술지원

1984년 ‘알파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독자엔진 및 트랜스미션 개발에 착수한 이래, 테스트를 위한 엔진 시제품만 300여 대, 트랜스미션 200대, 시험차량 15대 등이 투입되었다. 1991년 마침내 우리는 자동차의 기본인 스타일링뿐만 아니라 엔진 및 트랜스미션 설계의 자체 개발에 성공했고 이로써 순수 독자기술에 의한 완성차를 생산하게 된 것이다.

- 1991.01. 정세영 명예회장

Since we set out to develop the company's very own engine and transmission as part of the Alpha Project in 1984, 300 engine prototype units, 200 transmission units, and 15 test vehicle units have been used in tests. In 1991, we finally succeeded not only in developing our very own styling of a vehicle, but we also single-handedly designed an automobile engine and transmission without any external assistance that same year, marking the first time a Korean car company had ever produced an automobile using purely independent technology.

- Chung Se-yung, January 1991

### 기본이 바로 서야 경쟁력도 커진다

자동차의 기본은 엔진입니다. 때론 정세영 명예회장은 대한민국의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 개발

이 성공리에 마무리되고, 1976년 에콰도르를 시작으로 1986년 자동차의 본고장 미국에 이르기까지 해외 진출이 나날이 확대되던 시기에도, 자동차 엔진 국산화의 꿈만은 절대 미뤄두지 않았습다. 1984년 ‘알파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독자엔진 및 트랜스미션 개발이 마침내 완성된 게 1991년. 8년 여에 걸쳐 300여 대의 엔진, 200대의 트랜스미션, 15대의 시험차량이 투입되었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프로젝트였지만, 정세영 명예회장은 포기할 모른는 도전정신으로 순수 독자기술 완성차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이어 ‘수출만이 살 길이고, 기술 개발 없이는 수출도 요원하다’는 신념으로 기술 혁신을 독려했고, 이는 1996년 10월

첨단 자동차 기술의 산실인 남양 자동차 종합기술 연구소 준공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초가 탄탄하고 기본이 바로 서야 차별화 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정세영 명예회장의 신념이 우리 자동차 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가져온 것입니다.

### 기초학문에 대한 남다른 애정

정세영 명예회장은 ‘학문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기초학문의 발전 없이는 실용학문의 발전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고려대 정치학과에서 수학하는 동안 각종 교양서적을 섭렵하며 인문학에 매료되었던 그는, 기초학문이야말로 국가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가정형편으로 뒤늦게 책을 접했고, 열 살이 되어서야 간신히 소학교에 입학했지만, 정세영 명예회장은 책에서 좀처럼 손을 떼지 않았습다. 그

는 늘 열정적인 자세로 학문에 전념했고, 전공이든 교양이든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독서광’, ‘메모광’이라 불렸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1953년 고려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이듬해 미국 유학길에 올랐던 것 또한 학문에 대한 불타는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학비 문제로 명문 뉴욕 콜롬비아대학교 석사과정을 떠나 1955년 전액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오하이오주 마이애미 대학으로 이적했을 때도 학문에 대한 열정은 그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정세영 명예회장이 외국인 졸업생으로는 처음으로 마이애미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세영 명예회장은 학문, 특히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야말로 국가 경쟁력을 굳건히 하는 기반이라 생각했고, 그 믿음을 다양한 지원책으로 구현했습니다. 이화여대 아

산공학과, 고려대 이화관 등을 설립해 기증한 것이 그 좋은 사례입니다.

### 신념이 투자로 이어지다

포니정 재단은 정세영 명예회장의 이 같은 뜻을 이어받아 지난 2009년부터 인문학에 대한 학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선 모든 학문의 기본인 기초학문에 보다 긴 안목과 호흡으로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정세영 명예회장의 신념이 학술지원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는 역사 분야에 한정되었던 기존의 학술지원을 인문학 전체로 확장하고, 지원 대상 또한 교수에서 학위 취득 5년 이내의 인문학 박사로 대폭 수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인문학 연구자들이 포니정 재단의 학술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문호를 넓혔습니다.

포니정 재단의 학술지원 수혜자는, 매년 6월 학술지원 연구과제 공모를 통해 우수 박사 연구자들로 부터 연구계획서를 접수 받은 후, 타 대학 전공교수의 교차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최종 심사를 맡은 교수 3인의 1대1 심층면접평가를 통해 선발됩니다. 단, 연구자는 문학박사학위 취득 5년 이내인 자로 전임강사 이상은 제외하며, 연구계획서에는 본인이 연구하고 싶은 분야와 목적, 세부 계획 등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 인문학의 미래를 밝히다

포니정 재단은 앞으로도 꾸준히 매년 2~3명의 연구자를 선정해 총 4,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연구 결과에 따라 별도의 심사를 거쳐 출판지원금 1,000만원을 지원하고 ‘포니정 학술총서’로 발간해 보전할 계획입니다. 문학, 사학, 철학 등 기초학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학계의 찬사를 한 몸에 받고 있는 포니정 재단의 학술지원. 그 성과가 ‘포니정 학술총서’로 차곡차곡 쌓여 인문학의 희망찬 미래를 밝혀나가길 기대합니다.

### A solid foundation will improve competitiveness

The most basic part of an auto-mobile is the engine, which is why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 did not stop pursuing his dream of building engines in Korea—and not importing them—even in the days when Hyundai Motor Company was selling cars overseas. After successfully completing work on Korea's first independently built automobile model, the Pony, Hyundai started selling automobiles in

Ecuador in 1976 and then moved on to the U.S. in 1986. However, the engine and transmission—built entirely using Korean technology—were produced later as part of the Alpha Project, which was launched in 1984 and completed in 1991. Although things were difficult and demanding for more than eight years, Chung succeeded in producing truly Korean automobiles as a result of his relentless pioneering spirit. He then encouraged even greater technological innovation with the belief that exports are critical for a country's survival, and Hyundai could not export anything without further developing its technology. This kind of thinking led to the completion of the Namyang Technical Research Center, the cradle of cutting-edge automotive technology, in October 1996. Chung's belief in the necessity of a solid foundation to ensure unique competitiveness brought about the growth of Korea's automotive industry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 A special affection for fundamental studies

Chung believed that studying was no different than automobiles, and that without developing a basic ability to study, one could not carry out any kind of meaningful, practical studies. While a student at Korea University's Department of Politics, he was fascinated by the humanities and liberal arts, so read a wide variety of books in those fields. He also thought that understanding the basics to studying was a very important element for a country to become more developed. Although he started reading relatively late because of his family's financial situation (and didn't start elementary school until the age of 10), Chung was always hungry to learn more about everything, not just his field of study at university.

Out of such a passion for learning, Chung went to the U.S. a year after graduating from Korea University in 1953 to continue his studies. In 1955, he changed schools, going from Columbia University in New York to Miami University in Ohio, because Miami of Ohio offered him a full scholarship for his master's degree. Due to financial constraints, he had to leave his school of choice in 1955, at which time his passion for learning became a pillar of hope for him. Later, Chung was given an honorary Ph.D. degree from Miami of Ohio University, the first time it had conferred such a degree on a foreign graduate.

Chung Se-yung believed that an investment in one's basic studies formed a solid foundation for a country's competitiveness. Indeed, Chung embodied this belief in various ways by supporting numerous schools, like when he donated the money necessary to build Asan Hall at Ewha Womans University and the Natural Science Hall at Korea University.

### Beliefs lead to investments

The Pony Chung Foundation has supported liberal arts and the humanities since 2009, following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s belief that we should invest more money in fundamental studies, the foundation for further studies and the continuous growth and development of Korea. In 2012, the Pony Chung Foundation expanded the number of fields it supported, from only history to all of the humanities and liberal arts, and expanded the number of potential recipients to Ph.D. holders who earned their degree five years ago or later so that more researchers in the humanities and liberal arts could receive academic support from the Pony Chung Foundation.

The beneficiaries of this academic support are selected through in-depth one-on-one interviews with three professors (judges) after the foundation has had a chance to review each highly qualified candidate's study plans through an open invitation to the public, and after they have been screened through cross-evaluations by professors from different universities. However, if a Ph.D. holder earned their degree five years ago or later and is now a full-time university lecturer, he or she is excluded. Furthermore, each study plan should specify the field in which the applicant wants to study, the goal of the study, and a detailed plan on how to accomplish their goal.

### Brightening the future of the humanities and liberal arts

The Pony Chung Foundation will continue to support two or three researchers every year from a fund that totals KRW 40 million. Depending on the final study results, a publication grant of KRW 10 million will be provided to select applicants through a separate screening process, with the study results published as part of the Pony Chung Academic Series. As more books are published through this unique series, it will have a greater ability to brighten the future of the liberal arts and human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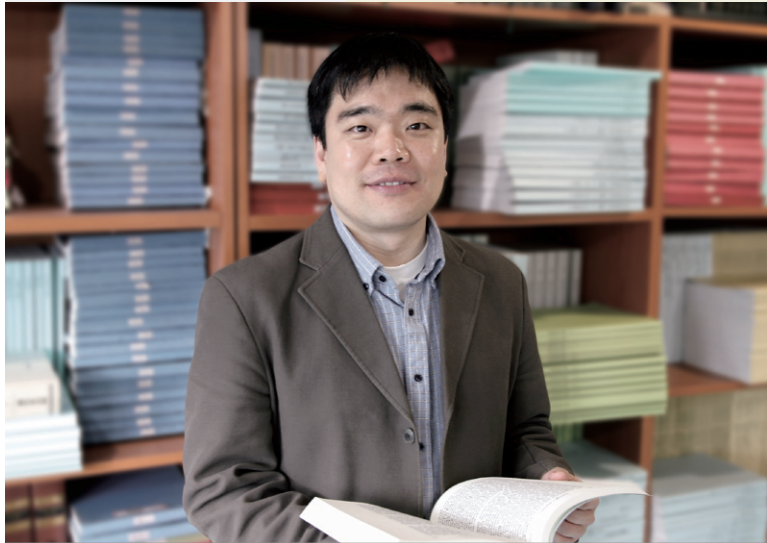
# I’m discovering new meaning in historic facts by meticulously pouring over records from a 20-year period in China’s early 19th century.

중국의 19세기 초 20여 년간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새로운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찾습니다.

Lee Bo-go, Ph.D. (Modern Chinese Literature, National Tsing Hua University)

2009년부터 우리 역사의 숨겨진 부분을 복원하고 재해석하며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발표한 포니정 학술지원 사업이 2012년부터 그 영역을 인문학 전 분야로 확장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 첫 번째 학술지원 대상자는 19세기 서구의 대중국 지식 체계화 과정을 연구하고 있는 이보고 박사입니다.

The Pony Chung Foundation has been providing inspiration to numerous historians so that they can discover unknown parts of the past since 2009. In 2012, the foundation broadened the scope of funding to more than just history. This is when they began offering funding to scholars/researchers in any field within the humanities or liberal arts. In 2014, one of the academic grant recipients was Lee Bo-go, who is essentially studying how the West learned about China in great detail.



## 남들이 가지 않는 길. 그래서 더욱 의미 있는 길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인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자들에게 이렇게 큰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도전하라는 정세영 명예회장의 뜻처럼,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이 분야가 언젠가는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더욱 연구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이보고 박사는 어린 시절 TV로 보았던 정세영 명예회장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한다. 미국에서 현대 자동차 공장 준공 당시 정세영 명예회장이 기자들과 인터뷰하던 장면이었는데 포니정 재단의 학술지원 수여식 행사에 참여해 포니정의 영상을 다시 보니 어린 시절 느꼈던 그 감동이 떠올라 감회가 남달랐다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올 1월부터

‘19세기 서구의 대중국 지식 체계화 과정 연구 - 중국 최초의 영문잡지인 『Chinese Repository(1832-1851)』와 『The Middle Kingdom(1848)』의 관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연구를 시작한 이보고 박사는 지난 2012년 청화대학에서 중국현대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입국하자마자 유학 전부터 같이 공부하던 ‘동아시아 문학 및 매체 연구실’로 돌아와 선후배들과 공부를 시작했다.

“유사한 전공분야 사람들이 모여 만든 연구 공간이라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함께 글 읽기 훈련은 물론 토론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저는 20세기 초 중국 문학 및 문화 텍스트 관련해 연구를 진행해왔지만, 이곳에서 19세기 중국학 분야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서구의 동양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Chinese

Repository』에 큰 관심을 갖고 연구 주제로 정해 이번 포니정 학술지원에 도전할 하게 됐습니다.”

## 체계적인 시각으로 과거를 되돌아보다

이번 포니정 학술지원으로 이보고 박사는 1832년부터 20여 년 간 중국에 와있던 선교사들이 발간한 중국 최초의 영문잡지인 『Chinese Repository』 텍스트에 반영되어 있는 당시의 중국 변화의 사회사뿐 아니라 필자들의 중국에 대한 시선 변화를 분석할 예정이다. 『Chinese Repository』 편집자 상당수가 서구 명문대학에서 중국학 연구를 시작한 연구자가 되었고 그 중 한 명인 Wells는 『Chinese Repository』의 내용을 기반으로 당시 중국에 대한 대표적인 서적 『The Middle Kingdom』을 출간했다.

“19세기는 서구의 중국에 대한 태도가 ‘선망과 동경’에서 ‘경시와 비하’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이지

만 아직 이 시기의 동양학, 특히 서구에서 바라본 동양학 연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시기에 대한 연구성과를 메우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년간 발행했던 『Chinese Repository』 전체를 3년간의 연구기간 동안 기존 텍스트 내부에 있는 학문적 분류와 카테고리를 당시 중국에 대한 지식의 체계화라는 측면으로 분석해가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중국에 대한 지식이 서구에서 어떻게 체계화되며 변화했고 서구 지식의 체계 속으로 편입해 들어갔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좋은 경료가 될 것입니다. 또 제 스스로 중국학(Sinology) 전반의 계보학도 다시금 정리해볼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 인문학은 미래의 융합시대를 이끌어갈 동력

실생활에 당장 필요한 실용적인 학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요즘, 인문학 학자에게 인문학의 의미에 대해 물었다. 이보고 박사는 근원적 질문이 없는 인문학은 공허한 지식의 축적이며 현상에 대한 해설일 뿐이라고 답했다.

“인문학은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탐구적인 학문으로 탐구자 스스로에게 반성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주제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지만 결국 본질은 인간과 그 정신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 연구 역시 주요 과제는 『Chinese Repository』 텍스트 분석이지만 궁극적인 탐구 목적은 이를 통해 인간의 ‘사선’을 따라가면서 그 속에 내포된 배타성의 폭력뿐만 아니라 자기반성의 정신작용까지 읽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인간 사유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다루는 것이 인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학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실제 사회생활이나 세계 경쟁의 논리 속에서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이 현실. 그러나 이보고 박사는 이미 시작된 융합의 시대에 인문학이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래에 우리는 기초학문은 순수하고, 응용학문은 생활에 직결된다는 식의 기존 학제적 사고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는, 새로운 융합의 사회로 진입할 것입니다. 융합이란 다른 조직방식에 의한 새로운 복합의 과정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그 과정에서 인문학적 상상력의 가치만큼이나 새로운 요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The road less traveled makes all the difference

“Thank you so much to the Pony Chung Foundation for all the help you offer scholars studying the humanities, a field which is often ignored in our society. I am

determined to study harder with the hope that the value of my field of study will be recognized one day. This makes me think of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s philosophy, notably, how we must never give up and work tirelessly for our goals.”

Lee Bo-go still remembers seeing Pony Chung on TV as a child. At the time, Chung was being interviewed by reporters because Hyundai Motor’s U.S. plant had just been completed. When Lee attended the academic grant ceremony earlier this year and saw a video image of Pony Chung, Lee was deeply moved.

Last January, Lee began researching a study entitled ‘A Study on How the West Learned about China – Based on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wo English Periodicals, 『The Chinese Repository (1832–1851)』 and 『The Middle Kingdom: A Survey of the Chinese Empire and Its Inhabitants (1848)』’. Lee began his studies with other people at East Asian Literature & Media Lab upon his return to Korea after receiving his Ph.D. in Chinese Modern Literature from National Tsing Hua University in 2012.

“People in similar fields of study opened the media lab years ago, as it’s managed voluntarily. While many people are individualistic in academia, our own media lab group finds new information by reading material and then discussing it together. We even collaborate with one another on projects. I used to be studying texts related to Chinese literature and culture from the early 20th century, but I expanded my interest when I got to Korea and began studying 19th century Sinology, too. I’m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e Chinese Repository』, a periodical which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West’s early studies of East Asia. There are few extant research materials about the periodical, and with my Pony Chung Academic Grant I plan on pursuing this line of research.”

## Looking back at the past with a fine-tooth comb

With the Pony Chung Academic Grant, Lee will analyze Chinese social history as well as changes in contributors’ views on China as they are reflected in the texts of 『The Chinese Repository』, a periodical published by Protestant missionaries between 1832 and 1851. The first English periodical in China, many of its editors would later go on to become scholars in the field of Sinology at renowned Western universities. One of these people was Samuel Wells Williams, who published 『The Middle Kingdom』, a well-known book about China in those days, based

on material from 『The Chinese Repository』.

“The 19th century was an important era when the West’s attitude toward China was changing from one of envy and yearning to one of contempt. However, not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is era in East Asian studies, so my study is very important in providing information about this time in history. It would be a daunting task to read through every periodical of 『The Chinese Repository』. Therefore, I’m conducting my study by looking at academic classifications and categories within the text, concentrating mainly on how Westerners recorded knowledge about China in those days. This study will provide an effective way to show how knowledge about China was recorded, changed, and incorporated into how the West viewed China as a whole.”

## The humanities are a driving force in the age of fusion and convergence

When asked what the humanities mean in today’s world, where more ‘practical’ fields of study usually receive more attention, Lee answered that without asking fundamental questions, the humanities are simply the empty accumulation of knowledge and simple interpretation of phenomena.

“The humanities are a field of inquiry, asking fundamental questions about human beings. Regardless of specific themes, the essence of the humanities is about humans and the human mind. This time around, although the theme of my study is an analysis of 『The Chinese Repository』, the ultimate aim is to look at human views, even to discover the violent way of excluding others and self-reflection by the writers in the periodical. I think the humanities deal with the positive and negative sides of human thoughts.”

Lee says that the humanities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age of fusion and convergence, an era already under way.

“We are in a society of new fusion/convergence where existing disciplinary thoughts—in which fundamental studies are purely academic and applied studies are directly related to life—are not very meaningful any longer. Fusion/convergence is a process whereby two or more elements join and form something new and become structured in a new way. During that process, the value of imagination, one based on the humanities, become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With a consistently critical mind and a unique point of view, I am attempting to study the history of East Asia from a new perspective.

끊임없는 문제 의식과 또다른 관점으로 공통의 역사공간, 동아시아의 역사 연구에 도전합니다.

Choi Hae-byeol, Ph.D. (History of Song and Tang, Peking University)

탄탄한 기초학문은 모든 학문의 밑거름입니다. 긴 호흡으로 지식과 사상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의 시작입니다. 2014년 두 번째 학술지원 대상자는 송대 여성사와 법제사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최해별 박사입니다.

Fundamental studies are the foundation for all in-depth studies. True innovation begins with nothing but establishing the foundation of knowledge and thoughts from a long-term point of view. The second recipient of the 2014 Academic Grant from the Pony Chung Foundation is Dr. Choi Hae-byeol, who is studying the history of women and legislation during the Song dynasty.



법제학 연구의 사회적, 역사적 의미

“포니정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영광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선택한 연구 주제의 가능성과 의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꼭 좋은 연구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올해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최해별 박사는 지난 2010년 베이징 대학에서 당송시기의 여성생활과 계약관계에 대한 박사논문을 발표한 이후, 송대 여성사와 법제사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이번 연구 주제는 「공주의 죽음, 우리가 모르는 3-7세기 중국법률이야기」라는 책을 번역하면서 책에 소개됐던 「세원집록」과 「무원록」을 접하고 그간의 연구내용과 법제사에 대한 관심을 한층 더 구체화한 것이다. 동양 최초의 법의학서인 「세원집록」은 서양이 법의학서보다도 300여 년 앞선 것으로 지방관이 살인사건을 재판함에 있어 지켜야 할 검험

매뉴얼을 상세하게 정리한 고서다. 법의학 분야는 다소 낯설지 않냐는 질문에 최해별 박사는 법의학의 발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함의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기원전 국가였던 진나라 유물에서도 이미 검험, 검사와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발견됩니다. 특히 중앙집권화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백성의 생사여탈권을 장악하고 먼 지방과 개인에 대해서 통제하기 위해 중앙은 검험 업무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송대에 정리된 「세원집록」은 원대 「무원록」으로 발전되며 중국 법제사 기틀을 잡았고, 이 책이 조선으로 건너가 당시 상황에 맞게 정리된 것이 「신주무원록」입니다. 「신주무원록」은 18세기 일본으로도 전해지게 되죠. 이렇게 법의학 서적과 지식의 전파, 번역을 통해 당시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던 동아시아라는 역사공간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기별, 국가별 계

승과 변용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동아시아 법의학 지식체계의 형성과정, 전파경로, 공유의 역사적 사회적 함의를 찾아내겠습니다.”

나무가 아닌 숲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

최해별 박사는 이번 연구를 위해 중국과 일본을 방문해서 각국의 법제사료와 그에 대한 연구를 먼저 살펴볼 계획이다. 다행히 조선의 법제사 사료는 풍부한 편이고 이미 높은 수준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비교 연구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동아시아의 공존과 연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이번 연구가 동아시아의 공통점을 인식하고 그 연구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라는 공간을 중국의 영향을 받은 한국과 일본이라는 단절적인 시각을 넘어 문화체계, 가치체계를 공유하는 하나의 생활권

으로 바라보고, 동아시아라는 지역사를 복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인문학

최해별 박사는 인문학의 매력을 한 마디로 표현해달라는 질문에 ‘사람과 세상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학문’이라고 답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어린 시절과 자라온 과정을 궁금해하는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따뜻한 마음으로 더욱 깊게 친해질 수 있지요. 또 하나의 예로,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가 중국을 단순히 경제적 가치로만 파악하려 한다면 관계를 지속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이해는 서로 얽힌 문제를 푸는데도 중요합니다. 최근 많은 국제 이슈가 국가간의 역사 문제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 철학과 같은 인문학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최해별 박사는 연구의 목표나 중착지라는 것은 미리 정할 수 없다고 한다. 언제나 궁금증을 가지고 여러 사료들을 읽어나가는 성실함으로 하루하루 앞으로 나아갈 뿐이라고 말한다.

“사료를 분석하는 힘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박사 논문을 쓸 때 지도 교수님이 주신 조언 역시 역사학은 사료와 문제의식으로 이루어지며, 역사학자는 끊임없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료를 보면서 그 사이를 이어가고 도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작은 주제에서 사료를 모으고 또 이를 여러 가지 문제의식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저는 벽돌을 만들어 쌓고 집을 짓는 과정에 빗대고 싶습니다. 제가 쌓을 집이 어떤 형태일지 지금은 예상할 수 없지만 무척 기대되고 궁금하기에 지금은 즐겁게 벽돌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The social&historic meaning of legislative studies

“It’s an honor for me to be a recipient of academic support funding from the Pony Chung Foundation. Most of all, I sincerely appreciate the foundation’s positively recognizing the meaningful theme of my study. I’ll do my utmost to carry out quality work from this point forward.”

One of this year’s recipients of academic support funding from the Pony Chung Foundation is Choi Hae-byeol. She is studying the history of women and legislation during the Song dynasty after she published her Ph.D. thesis on women’s lives and contracts during the Tang and Song dynasties at

Peking University in 2010. She came upon the theme of this study by further specifying her past studies and interest in legislative studies after she read 「Record of Washed Grievances(洗冤集錄)」 and 「Muwonrok(無冤錄)」, while translating a Chinese book titled Death of a Princess: The Story of Chinese Laws during the 3rd to 7th Centuries into Korean. East Asia’s first book of forensic medicine, 「Record of Washed Grievances」 was published more than 300 years earlier than the West’s first book of forensic medicine. 「Record of Washed Grievances」 presents a detailed investigation manual for local officials who are judging a number of murder cases. When asked if forensic medicine seems unfamiliar, even if historical studies embrace many different fields, Choi said that she paid attention to what the development of forensic medicine implies on a social level.

“Even from ancient B.C. 3rd-century artifacts from Qin, we can find very concrete stories about investigation and inspection. In particular, the central authorities paid careful attention to the investigation in order to have its life-and-death authority and to control local regions and individuals during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centralized state. 「Record of Washed Grievances」 was written during the Song dynasty and was developed into 「Muwonrok」 during the Yuan dynasty, establishing the frame of Chinese legislative history. The book was then sent to Joseon and was reorganized to be suitable for the situations of those days, becoming 「Sinjumwonrok (新註無冤錄)」. This book was also sent to Japan in the 18th century. I think we can talk about the history of East Asia through the distribution and translation of books in forensic medicine. By carefully analyzing how knowledge was disseminated in each period, and in different countries, and how it changed, I will discover historic and social implications about the process and how knowledge in forensic medicine was formed, the routes along which it was distributed, and the sharing of it.”

Seeing the forest for the trees

For this study, Choi will visit China and Japan to examine each country’s legislative history and related studies. Fortunately, we have many extant materials about Joseon’s legislative history, and the level of studies is already high, so comparative studies will

be possible with the help of certain experts. Recently, ties between East Asian countries are important, and Choi hopes that this study will help people recognize common aspects of these countries and enlarge the scope of their studies on them.

Through this study I would like to look at East Asia as one living zone that shares a common culture and value system, instead of separating countries like Korea and Japan, as influenced by China. I also want to present another example of restoring the regional history of East Asia.”

Broadening people’s understanding of the world

When asked to sum up the allure of the humanities, Choi Hae-byeol answered that the humanities enable a deeper understanding about people and the world. “When we meet someone, we can’t fully understand them by their appearance or by a short conversation alone. Through an approach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umanities—one interested in the person’s childhood and growing years, for example—we can come to understand the individual more deeply. Another example is international relations. If Korea thinks of China simply as a huge market or the country has economic value, it is hard to maintain a good relationship with China. Historical understanding is necessary for nations to make ties and approach each other, but it is also important for them to solve complicated problems between them. Most recently, the importance of studies in the humanities, including history and philosophy, seems more pragmatic.”

Choi says she cannot determine the goal or destination of a study in advance. She says she just continues to read many different historical records, always with curiosity and sincerity, day by day.

“I hope to have a better ability to analyze historical materials. When I was writing my Ph.D. thesis, my professor advised me that historical studies consist of historical records and a critical mind, and that a historian should constantly read those records with a critical mind while connecting the hidden parts of history and try to better understand them. I would like to compare the process of gathering materials and analyzing them with the process of making bricks and building a house. I don’t know yet what my figurative house will look like when completed, but for right now I’m enjoying making bricks.”

# PONY CHUNG

## 포니정 장학금

# SCHOLARSHIPS

자신의 개발과 나라를 위하는 길은 스스로 실력을 배양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더욱 끝없는 자기 혁신과 개발을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 눈물에 젖은 빵이 실한 영양소가 되는 것처럼 땀과 인내로 이룩하는 소망이야말로 더더욱 값진 역사창조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현실은 냉엄하고 삭막하기조차 하지만 상당히 정직한 편이기도 합니다. 더디거나 빠른 차이는 있을지언정 여러분의 노력에 대한 사회적 보답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 제86회 고려대학교 후기졸업식 교우회장 축사 중

We can never achieve self-development and contribute to making our country better without cultivating skills on our own. Thus, we need to constantly be innovating and seeking self-development...If you make your dreams come true through hard work and resilience, those same attributes will prove invaluable as you move forward in life.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You have to believe that your efforts will be appreciated by society, even if it takes some time for this to happen.

- from Chung Se-yung's speech at Korea University's 86th commencement ceremony

### 미래를 만드는 건 사람이다

사람의 능력은 참으로 무궁무진합니다. 절대 안 될 것 같은 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불굴의 의지, 저돌적인 추진력으로 밀어붙이면, 결국은 이루어 지고야 맙니다. 정세영 명예회장이 추진했던 모든 일들이 그러했습니다.

또한 정세영 명예회장의 이 같은 확고한 신념은 인재 양성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능력, 화합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아는 리더였고, 인재에 대한 애정 또한 남달랐습니다. 술한 해외 출장과 대내외 활동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년 실시하는 신입사원 연수는 절대 놓치는 법이 없었고, 외국 기업과 기술 제휴를 할 때도 우리 인력의 연수 기회 조건을 반드시 부가해서 넣었습니다. 인재 역량을 키워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미래를 향한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실현시켜 나가자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었던 셈입니다.

### 가능성의 힘을 믿다

정세영 명예회장의 이 같은 인재 중시 철학은 비단 사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계 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

는 신념은, 직원 교육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로도 이어졌습니다. 서울대와 울산대 등에 기계공학 기술자를 파견해 전자공학 기술을 습득케 하는 메카트로닉스 교육과정을 운영했고, 1983년 외국인 졸업생으로서는 처음으로 모교인 마이애미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을 때도 한국어 강좌 개설을 요청, 모교에 미국 내 대학 최초로 한국학 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세영 명예회장은 1955년 미국 유학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이 중단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으며 장학금의 소중함을 체험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학업에 대한 의지를 편지에 담아 여러 대학으로 보냈고, 마침내 마이애미 대학으로부터 전액 장학금 지급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이 있는 인재들의 학업에 대한 열정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믿음과 함께, 미래 인재들을 위한 지원으로 이어졌습니다.

### 대한민국의 내일을 후원하다

지난 2006년 12월부터 계속되어온 포니정 장학금은 이 같은 정세영 명예회장의 인재 중시 철학을

계승,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포니정 재단의 노력입니다. 2014년 현재까지 총 260명의 대학생이 포니정 장학금의 수혜를 받아 학업을 지속할 수 있었고, 그 전공 분야 또한 토목, 건축에서 인문학 등으로 나날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포니정 재단의 국내 장학금 수혜자 선정 작업은, 매년 9월 포니정 재단에서 지정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2~3학년 학생을 공개 모집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학업 성적은 우수하나 학자금 조달이 어려운 학생 중 30명을 최종 선발해 1년간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더불어 장학생들은 1년간 동계 워크숍, 하계 현장답사, 현대산업개발 임직원과 함께하는 멘토링 제도를 통해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포니정 재단은 지난해부터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학술탐방단을 선발해 학생들에게 깊이있는 전공분야 탐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월 초, 해외학술탐방단 모집 공지에 따라 2인 1조로 전공 심화 주제를 선정해 학술탐방 계획서를 제출하면 서류심사와 면접 PT를 거쳐 5월 말에 최종 2팀을 선발합니다. 탐방 계획대로 6주 이상 해외에 머무르며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

며, 탐방비로 팀 당 1천 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루고 싶은 꿈과 이 꿈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굳은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베트남의 빛나는 미래를 앞당기다

포니정 재단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외 장학사업의 첫 대상 국가로 베트남을 선정,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베트남 대학생 총 380명의 1년간 대학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지원해왔습니다. 포니정 베트남 장학금은, 매년 9월 베트남 호치민 국립대학과 베트남 하노이 국립대학에서 국제적 감각, 성적, 가정 형편 등을 기준으로 1차 후보자를 선발한 후, 10월 초 재단의 최종 심사를 거쳐 각 학교별로 30명씩, 총 60명의 장학금 수혜자 명단을 최종 확정합니다. 장학금 수여식은 각 학교별로 10월 말 혹은 11월 초에 개최되며, 1년간 대학 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가 지원됩니다.

포니정 재단은 지난 2012년부터 기존 베트남 장학생 중 성장잠재력이 탁월한 졸업생들을 추천 받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베트남 초청 장학금 제도로 운영 중입니다. 기존 포니정 베트남 장학생 중 졸업 후 석사과정 유학을 준비 중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고려대학교 대학원의 입학 심사를 거쳐 프로그램에 적합한 학생을 초청 장학생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최종 장학금 수혜자 2명은 6월 말에 확정돼 9월에 입학하며, 입학금과 등록금은 고려대학교 대학원과 포니정 재단에서 분담해 전액 지원합니다. 또한 포니정 재단은 이와 별도로 2년간 매월 생활비 90만원, 왕복항공권, 50만원 한도의 논문인쇄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People make up the future

Our abilities as humans are boundless. What seems impossible today is eventually accomplished by those who seek to achieve their goals with confidence, an unshakeable will, and the strength to pursue daring initiatives. Honorary Chairman Chung was just such a man.

Chung also applied this set of beliefs to fostering talented people. He was a leader who understood the limitless potential of man's abilities better than anyone, and had extraordinary trust and affection for people. Despite his busy schedule and his commitments both inside and outside Hyundai—not to mention countless business trips overseas—he never missed the company's annual new employee training session. In addition, he made sure he

personally signed every technology partnership agreement with foreign companies, each of which was always accompanied by an additional clause that stipulated Hyundai employees be properly trained.

### Believing in the power of potential

Chung's belief that it is important to foster talented people in order for a company to thrive as a world-class company was connected not only to employee training but also to investing in today's students. He sent professional mechanical engineers to schools like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Ulsan to teach mechatronics courses. When he received an honorary Ph.D. from Miami of Ohio (his alma mater) in 1983—the first time a foreigner had been granted a doctorate from the university—Chung asked that the school offer a Korean language course to students and fund America's first university-level Korean studies program.

Chung knew firsthand how hard it was to continue one's studies without the necessary funds. In 1955, he was forced to drop out of school because he could not afford the tuition any longer. After writing a number of different universities incessantly, day after day, he eventually got word from Miami of Ohio that they were willing to give him a full scholarship to continue his studies. He never forgot the joy and gratitude he felt in that moment. This experience only strengthened his firm belief that students with a lot of ambition and high ideals should be able to pursue their studies even when they face seemingly insurmountable difficulties.

### Supporting Korea's future

The Pony Chung Foundation has been giving out scholarships to students since December 2006 in an effort to keep Honorary Chairman Chung's philosophy alive of valuing talented people in preparation for Korea's future. In its first nine years, 260 students received scholarships, with eligibility broadening from civil engineering to the humanities and liberal arts. The Pony Chung Foundation's screening process for Korean students starts with an announcement inviting university sophomores and juniors from select schools (as designated by the foundation) to apply for a scholarship in September every year. Ultimately, 30 outstanding students who are having financial difficulties are provided with a year's worth of tuition fees. In addition, scholarship

students receive opportunities to share their vision and have various experiences over the course of a year through several programs, such as the winter workshop, summer field trip, and mentoring programs run by Hyundai Development Company executives and employees.

In addition, the Pony Chung Foundation has provided select students with a chance to further explore their academic majors via the Global Research Trip Group since 2012. According to an announcement made at the beginning of every May, applicants in pairs submit their research trip plans, with two final teams chosen in late May through document screening, interviews, and presentation tests. Each team is given KRW 10 million and needs to submit two reports while they are overseas for their planned six-week stay. This program is proof that anyone can make their dreams a reality if they have the will to make it happen.

### Lending a helping hand to ensure Vietnam a brilliant future

The Pony Chung Foundation does even more to assist future talents. Since 2007, it has provided a total of 380 Vietnamese students with scholarships that cover tuition and basic living expenses for a year. Every September, the Pony Chung Vietnam Scholarship Program selects first-stage candidates from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o Chi Minh and Hanoi campuses) based on their ability to see the world in a broader perspective, academic achievements, and financial status. That group is then shortened to a total of 60 recipients (30 from each school) through the foundation's final screening process in early October. Scholarship ceremonies are then held from late October to November at both schools.

Since 2012, the Pony Chung Foundation has run an Invitation Scholarship program for those same Vietnamese students chosen to receive a scholarship to take a master's degree at Korea University. After reviewing applications from present Pony Chung Scholarship students, two recipients are confirmed in late June. They can then enroll at Korea University in September, with entire entrance & tuition fees covered by Korea University and the Pony Chung Foundation. The foundation also helps students with their monthly living expenses (KRW 900,000 per month), round-trip airfare, and a stipend to cover the cost of printing their thesis (within KRW 500,000) as funds separate from the actual scholarship.



PONY CHUNG SCHOLARSHIP RECIPIENTS   포니정 장학금 수혜자 소개

BOUNDLESS DREAMS  
AND THE PROMISE OF  
A BETTER FUTURE

간절한 꿈,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

찬란한 역사와 미래는 누가 가져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창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일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1996.01.03 현대그룹 회장 이임사 中

A brilliant history and future are not things that are given to us free of charge but are things that we should create for ourselves. Making a powerful country is your duty.

- from Chung Se-yung's farewell speech as Chairman of the Hyundai Group (January 3, 1996)

포니정 재단의 장학사업은 정세영 명예회장의 인재 존중 철학에서 출발합니다. 정세영 명예회장은 인재야말로 대한민국의 꿈이자 희망이며, 미래라고 믿었습니다. 수많은 외국출장과 대내외활동으로 바쁜 와중에도 신입사원 연수는 반드시 참여했고, 서울대와 울산대 등에 기술자를 파견해 전자공학 기술까지 습득케하는 메카트로닉스 교육과정을 운영했던 것도 세계 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정세영 명예회장은 또한 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재들이 자신의 꿈을 과감하게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같은 정세영 명예회장의 믿음을 이어받아 포니정 재단은, 어떠한 역경과 난관이 닥친다 해도, 더 나은 미래를 향

한 젊은 인재들의 간절한 꿈이 꺾이지 않도록, 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2006년부터 뿌려온 작은 희망의 씨앗이 거대한 희망의 푸른 숲을 이루는 그날까지, 포니정 재단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The Pony Chung Foundation’s scholarship program has its roots in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s philosophy of respecting talented people. For him, talented people represented a nation’s dreams, hopes and future. Despite his busy schedule and his commitments both inside and outside Hyundai—not to mention countless business trips overseas—he never missed the company’s annual new employee training session. He sent professional mechanical

engineers to schools like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Ulsan to teach mechatronics courses. These tasks were due to his belief that it was important to foster talented people in order to make an organization grow into the world’s leading company. Chung also thought that the increasing number of talented people should be allowed to pursue their own dreams boldly in order for Korea to grow and develop. Following his belief, the Pony Chung Foundation will continue to support and encourage young people to dream big so that they do not become frustrated, even in the midst of adversity. The foundation is committed to working hard until the little seeds of hope it has planted since 2006 become a huge forest of hope.

2014 PONY CHUNG SCHOLARSHIP STUDENTS, DOMESTIC (30 STUDENTS)

2013년 선발 / 2014년 장학금 지급

성명	학교	전공
고민정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고지원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구건희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김미혜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김은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김종승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박병민	연세대학교	건축학과
박유리	서강대학교	사학과
박준형	연세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박중현	한양대학교	사학과
성유민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신동호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신이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이규열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이동현	서강대학교	철학과

2013 PONY CHUNG SCHOLARSHIP STUDENTS, VIETNAM (60 STUDENTS)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o Chi Minh City

Name	Major
Dam Nguyen Trong Nhan	Information Technology
Dinh Quang Tuan	Computer Science
Duong Quoc Phong	Medicine
Hoang Thi Ly	Business Administration
Huynh Le Thao Trinh	Biotechnology
Huynh Thi My My	Enviremental Management
Huynh Thi Tu Linh	Literature and Linguistics
Le Dinh Khai	Geology and petroleum engineering
Le Hoang Hoa	Computer Networks and Communications
Le Khac Huyen	Technology of material
Le Thanh Danh	International Relations
Le Van Anh Thong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Nguyen Dang Khoa	Chemical Engineering
Nguyen Huu Phu	Civil Engineering
Nguyen Thi Binh	History
Nguyen Thi Hoang Hieu	Business Administration
Nguyen Tri Hai	Computer Science
Nguyen Tri Phuc	Computer Science
Nguyen Van Quoc Thai	Urban Studies
Pham Dang Lam	Physics
Pham Hoang Long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Pham Ngoc Y	International Economics & International Economic Realtions
Pham Nguyen Truong An	Computer Science
Pham Quang Truong	Business Administration
Pham Toan Truc	Chemical Engineering
Tran Cong Nguyen	Information Technology
Tran Hung Nghiep	Computer Science
Tran Thi Bao Trang	Industrial Management
Tran Thi To Loan	Business Administration
Vo Van Phung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ing

2013 GLOBAL RESEARCH TRIP (2 TEAMS / 4 STUDENTS)

성명	학교	전공
김지혜	고려대학교	철학과
허다운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차운지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표상록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2013 PONY CHUNG INVITATION SCHOLARSHIP, VIETNAM (2 STUDENTS)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성명	학교	전공
이선영	한양대학교	철학과
이예슬	서울대학교	철학과
이은주	고려대학교	철학과
임경민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전세웅	연세대학교	사학과
정덕원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정연교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조유영	서강대학교	사학과
차운지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최규현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최지웅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허희연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황운정	연세대학교	철학과
황재진	연세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황준일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Name	Major
Bui Thien Sao	English
Chu Hoang Linh	Law
Dang Ngccc Due	Law
Dang Thuy Duong	French
Do Dac Phuong	Economics Management
Doan Phuong Thuy	English
Hoang Nhu Dong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La Thi Van Anh	Korea
Le Thi Thanh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Ngo Thi Hoa	Physics Education
Ngo Thu Trang	Law
Nguyen Chi Trung	Library and Information
Nguyen Dinh Chinh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Nguyen Duong Nguyen	Physics
Nguyen Ha Thanh	Information Technology
Nguyen Huong Ngoc	Literature
Nguyen Minh Truong	Literature
Nguyen Thi Minh Hong	Nano Magnetic Materials and Devices
Nguyen Thi Nhan	Accounting
Nguyen Thi Thu Mai	Environment Science
Nguyen Thi Thu Thuy	Chemistry
Nguyen Thuy Huong	Environment Science
Pham Van Kim	Political Economics
Phung Thi Thanh Lam	Vietnamese Studies
Tran Hung Quan	Computer Science
Trieu Thi Bich Nguyet	Oriental Studies
Trinh Thi Nga	Sociology
Truong Minh Nguyet	Chinese
Vu Huy Hien	Computer Science
Vu Thi Hien Thu	International Economics



# I want to be an architect who plays a leading role in future residential culture.

미래의 주거 문화를 리드하는 건축가가 되겠습니다

Cha Yoon-ji (Architecture, Hanyang University)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포니정 장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귀중한 경험을 쌓으면서 시야를 넓힌 만큼 올해는 건축가의 꿈을 향해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고 실천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건축학도로서 건축의 시작이자 가장 기본적인 ‘주거 공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동기와 함께 ‘벨룩스 국제 공모전’을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건축가 소우 후지모토 (Sou Fujimoto) 의 「건축이 태어나는 순간」을 읽고 미래의 우리 주거 건축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에 지난달에는 서울 서촌에 답사를 가서 한옥과 적산 가옥, 현대식 건물이 섞여 자아내는 독특한 분위기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전통 건축과 현대 건축이 어떤 접점을 가지고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더 깊게 고민하고 연구할 계획입니다.

오즘 주택건설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올바른 철학과 문화가 반영된 좋은 집을 짓는다면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작년 해외학술탐방단으로 유럽을 방문했을 때 묵묵히 한 길을 걸었던 거장들이 남긴 위대한 건축물들을 보면서 그 어느 시대의 그 누구도 편안한 상황 속에서 원하는 것을 이룬 적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건축가가 자신의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전성기는 적어도 50대가 넘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인 건축가를 봐도 삶과 철학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출발선에 섰습니다. 제가 살아온 시간만큼 아니면 더 긴 시간 동안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치거나 지칠 때도 있겠지만 그 때마다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는 정세영 명예회장의 뜻과 철학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힘들 때마다 도움이 되었던 그 분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후배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 줄 수 있는 큰 사람으로 성장하겠습니다.”

“I’m honored to be a Pony Chung Scholarship recipient once again, following the scholarship I received last year. After gaining some really valuable experience as an architecture student last year, I want to make this year more about growing as a person and working hard to be an architect. I’m extremely interested in residential spaces, the most basic element of architecture. Recently, I’ve been busy preparing my application for the International VELUX Award along with one of my classmates. In doing so, I read 「Primitive Future」 by the architect Sou Fujimoto and had time to think quite a lot about the direction we should take in the future with our residential/architectural culture. This led me to go and visit Seochon, Seoul and look around the old neighborhood in Jongro. I was really impressed with the unique atmosphere

created by the combination of traditional Korean houses, homes from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modern buildings. I’m planning to study more about how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contemporary architecture can be brought together in harmony.

These days, they say the housing construction business is not doing very well. However, I believe that if they build quality houses that reflect a desirable philosophy and culture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y can overcome this rut in the industry. Last year, I went to Europe as a member of the Global Research Trip Group and saw some truly great architectural structures left behind by great masters. It struck me at the time how nobody achieves what they want to very easily, no matter what the era.

It’s said that an architect should be at least 50 years old in order to realize his or her goal as a professional. Figuratively speaking, I’m at the starting line of my career right now, but I’m determined to work for as many years as I have lived—or more—to see my dreams through to completion. I imagine there will be moments along the way when I get tired or run into difficulties. It’s at those times I’ll remember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s philosophy, The future is what we make of it. In addition, I want to grow into a leader who can deliver Chung’s positive message to others, as it helped me so much in my own times of trouble.”



# I hope to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Vietnam.

베트남 과학 기술 발전에 큰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Nguyen Ha Thanh (Information Technology,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먼저 저를 포니정 장학생으로 뽑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포니정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 저에게는 크고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정세영 명예회장의 철학과 인생을 알고 나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또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꿈은 반드시 이뤄진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잘 안 될 거라고 포기하자고 할 때, 저는 일단 끝까지 해보자고 설득할 정도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앞으로 제 꿈을 이루는데 큰 힘이 될 소중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준 장난감이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해서 모두 분해해 버렸던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장난감들이 많이 망가졌지만 덕분에 제 적성과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 어렵פות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친구 덕분에 남보다 일찍 컴퓨터 프로그래밍 세계에 눈을 뒀습니다. 저는 그 매력에 푹 빠져 IT 선생님이었던 친구 아버지를 졸라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시작했고 8살 무렵 파스칼 프로그램을 코딩할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좋아하는 분야를 계속 공부하다 보니 지금은 대학에서 정보과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보과학자로서 제 최종 꿈은 베트남 국민이 좀 더 편안하고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선 제 전공 분야를 열심히 공부할 예정입니다. 졸업 후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대학교수가 되어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훌륭한 기술자를 많이 양성해 베트남

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할 수 있는, 베트남을 강국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실패가 많다는 것은 성공에 가깝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힘든 시기에 자동차 생산이라는 기적을 이룬 정세영 명예회장의 인생 스토리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정세영 명예회장의 꿈이 이뤄지기 전에 그것은 단지 꿈일 뿐,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그 분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이 사실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저 역시 정세영 명예회장님을 본받아 저의 꿈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First, thank you so much for selecting me as a scholarship student. After becoming a Pony Chung Scholarship recipient, there have been some changes in my life. Most of all, I became so much more confident in everything I do after learning about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s life and philosophy.

It also taught me that dreams can come true if we don’t give up and keep pursuing them. I was so optimistic that I persuaded my friends to do something—anything—even if they thought it wouldn’t work out. I think all these changes within me will be a meaningful foundation for me to realize my dream in the future.

In my childhood, my hobby was to open up the

toys my father bought me in order to ‘study’ how insentient things worked. Although I broke a huge amount of toys, I vaguely understood my passion and interest. Then, thanks to a friend, I was introduced to the world of computer programming. I was fascinated with programming, so I asked my friend’s father, an IT teacher, to teach me programming. By the time I was around eight, I learned how to program the Pascal language.

I’m now majoring in information technology at university. My ultimate goal as a scientist is to help Vietnamese people have a better life based on a strong economy. In order to make my dream come true, I’m studying hard these days. After university, I want to get a Ph.D. in and teach students about new technology as a professor. I also hope to help Vietnamese companies grow by fostering a new generation of world-class technicians. By doing this, I believe I can help make Vietnam a stronger country.

Hardship strengthens people. Some say, “The more failure, the sooner success.”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s life story impressed me because he achieved a miracle by producing cars in such difficult times. Before Chung’s dream came true, people said it was just a dream and that it was impossible to bring about. However, he never gave up and proved that his dreams could in fact be realized. By following Pony Chung’s example, I hope to achieve my dream one day.”



# SUSTAINABILITY: An Urban Transportation System, Shared Space & TOD

## 지속 가능한 도시의 교통체계, Shared Space & TOD

Pyo Sang-rok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Cha Yoon-ji (Architecture, Hanyang University)

포니정 재단은 지난해부터 포니정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학술탐방단을 선발해 해외로 나가 견문을 넓히고 전공

분야를 깊이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술탐방계획서 심사 및 면접 PT 등 까다로운 선발 절차를 거쳐 선발된 두 팀이 지난해 첫 해외학술탐방을 다녀왔습니다. 두 팀 중 유럽 주요 도시의 교통체계를 둘러보고 온 팀 ‘차표한장’ 팀의 차운지, 표상록 학생이 제출한 해외학술탐방 보고 내용을 소개합니다.

The Pony Chung Foundation launched the Global Research Trip Group in 2013 to offer select Pony Chung Scholarship students with an opportunity to trip abroad and further explore their fields of study. Last year, two groups were chosen after a vigilant screening process. What follows is an introduction to the report submitted by Cha Yoon-ji and Pyo Sang-rok.



### Shared Space & TOD란?

2013 해외학술탐방 계획서를 준비하며 차운지, 표상록 학생이 주목한 것은 ‘건축’과 밀접한 ‘도시의 교통체계’다. 빈번한 교통사고, 승용차 중심의 고비용, 저효율 교통체계, 도로 위주의 물류체계, 주차공간의 부족, 교통 혼잡 등 현재 우리나라 도시가 직면한 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에 최근 지속 가능한 도시의 교통체계의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Shared Space’와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를 학술탐방의 주제로 선정했다고 한다. ‘Shared Space’란 단순히 보행자, 자전거, 차량이 혼재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길을 여러 공간으로 분할하고 명확하지 않은 경계를 두어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뜻한다.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란 주민들이 직장

대중교통이나 보행, 자전거로 통행할 수 있도록 설계한 도시개발기법이다. 즉 상업, 업무기능이 밀집된 고용중심지를 대중교통의 정류장으로부터 반경 600~800m내 만들고 그 바깥 쪽에 주택과 공원을 배치함으로써 도시 내부를 이동할 때 대중교통의 이용을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차표한장 팀은 2013년 7월 15일부터 8월 25일까지 48일간 두 사람은 영국 런던, 스페인 바르셀로나,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 5개 국가의 도시와 교통기관을 방문해 교통체계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대중교통의 운영현황을 파악했다. 또한 영국 런던의 Seven Dials와 Kensington High 도로, 네덜란드 Leeuwarden 등 실제로 Shared Space가 잘 유지되고 있는 지역을 직접 방문했다. 교통 전문기관을 방문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을 뿐 아니라 방문한 국가별로 20~30명씩 시민 인터뷰와 설문지 배포를 통해 대

중교통 이용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과 참여도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조사결과 인터뷰이의 72%가 접근성, 가까운 역 간 거리, 환승 연계 시스템, 배차 간격, 24시간 운영 등을 대중교통의 장점으로 꼽으며 이용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고, 90%의 시민들은 혼잡 통행료, 도심 주차 공간 부족, 비싼 유지비 등으로 인해 개인 차량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 국내 교통문제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들

해외학술탐방을 다녀온 후 두 사람은 우리나라의 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을 제시했다. 첫째로 혼잡 통행료 정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과거 런던도 차량 수요가 많아 도심이 매우 혼잡했으나 2003년 혼잡 통행료 정책 도입 후 차량 수요가 급격히 감소해 도심 교통체증이 해소되었고 그 후 이러한 정책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고 한다. 둘째,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전환하는 것이다. 바르셀로나의 ‘Passeig du Gracia’처럼 노점상, 문화공연, 야외 카페 등이 자리잡는다면 교통문제를 해소할 뿐 아니라 경제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다. 유럽에는 버스, 전차, 케이블 카, 배 등 다양한 종류의 대중교통 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을 뿐 아니라 잘 연계되어 있어서 이용에 불편함이 적다. 국내에서도 버스, 지하철 이외에 다양한 교통수단을 마련하고 특히 지하철 역 수를 늘린다면 대중교통 이용률과 만족도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아이디어는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는 것이다. 자전거의 효율성과 실용성에 대해 충분히 홍보하고 자전거 시설을 확충해 이용을 늘린다면 교통문제뿐 아니라 환경문제 해결과 국민의 건강증진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차표한장 팀은 여러 해결방안을 제안하면서 이러한 변화들을 이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국민 인식의 전환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Shared Space와 TOD의 전문 기관과 연구소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며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가야 하는데, 이 때 해당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살리는 방향으로 조성해야 할 것이다. 도시 공간과 교통 체계는 단순한 장소의 개념을 넘어 지역 정체성과 문화를 형성하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차표한장’이라는 팀을 결성해 2013년도 여름을 유럽 주요 도시의 대중교통 시스템과 사용자들의 시민 의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알차게 보내고 온 차운지, 표상록 학생.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생소한 Shared Space의 사례를 직접 보고 배웠던 것을 토대로 우리나라 대중교통 체계 및 시민의식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해외 학술 탐방을 통해 배운 것을 바탕으로 향후 건축학도로서 열심히 연구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리드하는 전문가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What is Shared Space & TOD?

While putting together their 2013 Global Research Trip plan, Cha and Pyo both paid close attention to urban transportation systems,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architecture. They tried to explore new ways to improve transportation problems in Korean cities, including frequent traffic accidents. They also looked into the high-cost, low-efficiency

transportation system centered on automobiles, a logistics system mainly dependent on roads, a lack of parking spaces, and traffic jams. They then selected ‘Shared Space’ and ‘TOD (transit-oriented development)’, which is emerging as a sustainable urban transportation system, as the theme of their research trip. Shared Space does not simply mean a space shared by pedestrians, bicycles, and vehicles, but a way of improving spatial efficiency by dividing one street into many different spaces with flexible borders. TOD is an urban development method to design an area so that residents can move by public transport, on foot, or by bicycle as often as possible. In other words, the center of commerce and work is placed 600-800 meters from public transportation stops, with houses and parks located outside the central area in order to expand the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when people move around the city.

From July 15 to August 25, 2013, Cha and Pyo went to London, Barcelona, Paris, Berlin, and Amsterdam. While there they visited transportation organizations to research the operation of public transportation systems as well as compare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nsportation systems. They also went to areas where Shared Space is well developed, such as Seven Dials and Kensington High Street in the U.K and Leeuwarden in the Netherlands. They listened to experts’ opinion and interviewed 20 to 30 people in each country to survey ordinary people’s awareness and participation in the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In all, 72 percent of interviewees replied that they are satisfied with their public transportation, mentioning accessibility, the short distance between stops, the transfer system, transportation intervals, and 24-hour service as merits. At the same time, 90 percent of respondents said they prefer public transportation to personal vehicles because of congestion fees, lack of parking spaces in city centers, and the high cost of maintenance.

### Ideas for improving Korea’s transportation system

After completing their Global Research Trip, Cha and Pyo suggested a few strategies to improve Korea’s transportation system. To begin, Korea can expand the scope of congestion fees. Since London

introduced congestion fees in 2003, the number of vehicles on city streets has rapidly decreased and traffic congestion in the city center has been resolved. Since then, the city has continued to expand the policy. Second, Korea can change streets from vehicle-centered streets to pedestrian-centered ones. If street vendors, cultural performances, and outdoor cafes are more efficiently organized, as with Passeig du Gràciain Barcelona, traffic problems can be solved with positive economic effects. Third, Korea needs to offer more diverse forms of public transportation. In Europe, there is a variety of public transportation, such as buses, trams, cable cars, and ships, all of which are well connected, so people have many choices and little inconvenience using them. People would likely be more satisfied with greater public transportation, especially if the subway system were to be expanded. If subway trains operated more frequently, it would also help solve long commutes and congestion in stations. Their last idea is to encourage people to use bicycles as a means of transportation. If Korea fully promotes the efficiency and practicality of bicycles and expands bicycle facilities it will not only help solve traffic problems but also positively influence the environment and public health.

Cha and Pyo emphasized that changing people’s awareness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to bring about such changes. Korea does not have very many specialized organizations or research institutes to deal with Shared Space and TOD yet. Thus, the country needs to apply these measures step by step, and local residents should be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s urban spaces and transportation systems do not simply influence a place but are the foundation for local identity and culture.

Cha Yoon-ji and Pyo Sang-rok spent a very fruitful time in 2013 examining public transportation systems and users’ civic awareness in Europe. They presented new possibilities to help develop Korea’s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and raise civic awareness based on what they learned about Shared Space, which is still unfamiliar to many Koreans. Cha and Pyo say they will continue their studies based on what they learned from this trip. They also described their ambition to become architectural experts who will take the initiative in developing sustainable cities in the future.



# I'd like to be a professor who teaches people about hope and dreams as well as English.

영어와 함께 꿈과 희망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겠습니다.

**Nguyen Thi Quyen** (Master's student in English Education,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3년 포니정 재단의 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영어 교육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응우

엔 티 꾸엔. 향후 베트남 학생들에게 영어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을 가르치고 싶다는 그녀의 당찬 포부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Nguyen Thi Quyen was the recipient of the 2013 Pony Chung Invitation Scholarship and is currently taking a master's-level course in English Education at Korea University. She talks about her ambitious dream to teach Vietnamese students not only the English language, but all about hope and dreams as well.



##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오는 것

“처음 포니정 초청 장학생 제도에 대해 들었을 때 저에게 분명 좋은 기회라고 확신했어요. 최종 면접 단계에서 조금은 떨리긴 했지만 그 동안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잘 될 거 같았죠. 저의 이런 자신감을 좋게 봐주신 듯해요. 제가 선발됐다는 소식을 듣고, 역시 꿈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반드시 이뤄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실감했습니다.”

2013년 포니정 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현재 고려대학교 영어 교육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응우엔 티 꾸엔은 베트남 국립 하노이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 졸업생 대표까지 된 재원이다. 포니정 베트남 장학생 출신인 그녀는 한국에 오기 위해 일 년 반 동안 성적 관리 및 석사 과정에 필요한 리서치 기술 향상은 물론 영어 공부에 매진했다. 중간에 과연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굳은

의지만 있다면 꿈은 이뤄진다는 정세영 명예회장의 가르침이 큰 도움이 됐다.

“처음 베트남 장학생으로 선발되면서 정세영 명예회장의 철학과 삶을 알게 됐어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장학생들이 그 분의 굳은 의지와 용기에 감명을 받았습니니다. 저는 무엇보다 그 분의 목표지향적인 면을 본받고 싶어요.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간다면 꿈은 이뤄지니까요. 저 역시 저만의 꿈과 목표를 세우고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습니다.”

## 공부도 인생도 즐기듯 신나게

“추운 겨울에 하얀 눈이 소복하게 내리다가 봄이 되니 꽃이 활짝 피는 걸 보고 신기했어요. 사람들은 추운 날씨가 싫다고 하지만 저는 하얀 눈이 평평 내리는 겨울이 참 좋더라고요.”

계절 변화를 몸소 느낄 수 있어 한국이 좋다는 응

우엔 티 꾸엔이 이곳에 온 지 이제 6개월 남짓. 한국말은 서툴지만 열심히 한국 생활에 적응 중이다. 힘든 과정을 거쳐 한국에 온 만큼 그녀의 목표는 2년 내에 석사학위를 끝내고 연구논문 한 편을 출판하는 것. 뚜렷한 목표를 세우니 나태해질 틈도 없다. 그렇다고 무조건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다.

“한국 학생들과 생활하며 배운 것은 바로 인생을 신나게 즐기는 법입니다. 한국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만큼 신나게 놀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동안 공부나 미래에 대한 걱정과 스트레스 때문에 삶을 즐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놀 때는 모든 걸 잊고 신나게 즐겨야 그만큼 공부도 더 잘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

어렸을 때부터 언어의 아름다움과 복잡성에 큰 흥

미를 느꼈다는 응우엔 티 꾸엔은 글로벌 시대에 필수인 영어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다. 베트남도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처럼 많은 사람들이 영어 공부에 큰 비용을 투자하지만 실제로 그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본 응우엔 티 꾸엔은 영어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진로를 정했다.

“한국에서 영어 교육학을 전공하며 윤리학과 언어 교수 방법론, 읽기와 쓰기 훈련, 그리고 언어 학습 평가 방법 등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언어 교육에 중요하다는 언어학도 부전공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 교수님들은 모두 배울 점이 많습니니다. 학문적인 면은 물론이고 학생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과 철저한 시간 관념 등 함께 생활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응우엔 티 꾸엔은 한국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후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끝내고 베트남으로 돌아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것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싶다고 했다. 그녀의 꿈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르치는 존경받는 스승으로 남는 것이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우선은 학교 과제에 최선을 다하고 교육 현장에서 동료 학생들 및 교수님들과 협력해 열심히 연구할 계획이다. 또한 많은 학술 논문들과 이론 서적, 잡지들을 읽고 그녀만의 독창적인 관점과 기준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남과 다른 차별성과 독창성이 박사과정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인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를 보면 ‘무언가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라는 구절이 나와요. 제 가슴에 와 닿은 문장이죠. 저 역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고 간절히 원할 때 포니정 베트남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마음껏 공부할 수 있었어요. 이후 한국에서 공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지금 이렇게 한국에서 즐겁게 공부하고 있고요. 앞으로 베트남 학생들에게 희망을 가르치겠다는 제 꿈도 최선을 다한다면 꼭 이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에게 가능성과 자신감을 선물해주신 포니정 재단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Opportunity only abounds for those who are prepared

“When I first heard about the Pony Chung Invitation Scholarship, I knew it was a great opportunity. Although I was a bit nervous at the final interview, I was optimistic about how things would turn out because I'd prepared quite a bit in advance. I think

they looked at my confidence in a positive light. When I heard the news I was selected, I realized once again that a dream comes true when we don't give up and work hard for it.”

Nguyen Thi Quyen majored in English at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and was also named valedictorian when she finished her undergraduate degree. Already a Pony Chung Scholarship student in Vietnam at the time, she made sure that her performance at school could meet the demanding criteria required for the invitation scholarship. For 18 months, she also worked hard to improve the research skills she would need to do a master's degree and her English proficiency. Although this was far from easy, Pony Chung's attitude of being steadfast and goal-oriented provided the best example for her to follow.

“I learned about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s philosophy and his life when I was first selected as a Pony Chung Scholarship student in Vietnam. He is certainly an inspiration for me and several other students I know. Upon learning about him, I discovered that he had such different perspectives on things. Above all else, he was a steadfast, goal-oriented person. For me, I always try to approach my dreams and goals one step at a time.”

## Both studying and living with passion

“I've really come to love the changing seasons here: the cold and snow in winter, flowers blooming in spring. The weather is so nice. Although a lot of people complain about how awful it is in winter, for me it's totally fine.”

After living in Korea for more than six months, Nguyen Thi Quyen loves the changing seasons in the country. She has yet to become fluent in Korean, but is doing her best to otherwise adjust to life here. Currently, her goal is to complete her master's degree within two years and publish one research paper. With that clear goal in mind, there is no time for her to be lazy. However, that does not mean she has to always be studying.

“What I've learned from Korean students here is how to enjoy life. They're quite hardworking, yet they really love life at the same time. Actually, it's been a really long time for me since I could enjoy myself because of all the stress I've been under to do with my schoolwork and my future. What I've learned, though, is that I can study better if I occasionally

enjoy myself and let my hair down.”

## Making her dreams come true

Nguyen Thi Quyen has always been interested in the beauty and complexity of language, particularly English, which is an essential element in this era of globalization. Vietnam and other countries across Southeast Asia are investing a lot into learning English, yet the results are not always so encouraging. For that reason, Nguyen Thi Quyen ha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English education and planned her career around it.

“My major is English Education, which involves learning about the ethics and methodology of teaching language, literacy training, and how to assess language learning. My minor is Linguistics, which is pretty important to the education of language. At the same time, there's a lot I can learn from Korean professors. They're all highly qualified academically, they care about their students, and they're very time-conscious.”


Nguyen Thi Quyen says she plans to continue on to do her Ph.D. somewhere in the U.S. before she goes back to Vietnam to teach English to students there. Her dream is to be a professor who teaches people about hope and dreams as well as English. To make this a reality, she'll strive to do her best academically, while working in collaboration with her classmates and professors. Additionally, she feels she needs to read many more academic papers and become more familiar with theoretical issues so she can come up with something original to work on as a Ph.D. candidate.

“There's a really memorable sentence from my favorite novel, Paulo Coelho's The Alchemist: 'When you want something, all the universe conspires in helping you to achieve it'. In my case, I was selected as a Pony Chung scholarship student when I wanted to study English despite the difficult conditions I faced at home. I was able to study to my heart's content in Vietnam thanks to the scholarship. Later on, I made efforts to win the invitation scholarship and as a result I'm really enjoying school life here in Korea. I'm sure that my dream to teach Vietnamese students will come true one day if I keep working hard. I'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everyone at the Pony Chung Foundation who helped make this opportunity come true and gave me such confidence in myself.”



# I'm gaining a keen insight into the world as a historian.

역사학자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깊은 통찰력을 키워나갑니다.



**Park Cho-rong** (Doctoral student in History of Korea,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미래는 기다리는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개척하는 것'이라는 정세영 명예회장의 철학은 지난 9년간 수많은 포니정 장학생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포니정재단 3기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박초롱 선생. 그녀는 역사학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품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으며 소중한 꿈을 이뤄 나가고 있습니다.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s philosophy, 'The future is What we make of it,' has inspired so many Pony Chung Scholarship recipients for the past nine years.

Park Cho-rong was selected as one of the 3rd Pony Chung Scholarship students in 2007. She is now on her way to realizing her dream with a passion for history.

포니정 재단과의 소중한 인연

포니정 재단 3기 장학생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후 지난해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에 진학해 역사학자의 길을 걷고 있는 박초롱 선생. 박사과정 수료 후에도 학위논문 통과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지도 교수의 격려와 역사학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는 확신이 있어 망설임 없이 진로를 정했다.

“대학에 입학할 때는 국문학과를 지망했어요. 하지만 여러 학과의 수업을 들어본 후 사학과를 선택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문학과 철학, 예술 그 모두를 두루 공부해볼 수 있는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공에 재미를 느껴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포니정 재단과도 인연을 맺게 됐다. 박초롱 선생은 역사학을 전공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

한 외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포니정 장학재단과의 인연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장학생 모임을 통해 타 학교에서 같은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만나 자극을 받곤 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교내에서는 좀처럼 만날 수 없었던 건축, 토목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어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도 OB모임을 통해 그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모두들 각자의 분야에서 사회 생활을 하거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고만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혼자만의 연구에 빠지기 쉬운 저에게는 좁은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고요. 학생 때에는 포니정 장학생으로서의 자부심이 공부에 도움을 줬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큰 힘이 되었고, 지금은 포니정 장학생들과 정기적

인 만남을 통해 성장하고 있으니 포니정 재단은 늘 저와 함께하고 있는 셈입니다.”

분주하고 역동적인 박사과정생의 일상

대학원에 진학해 스스로 공부하는 삶이 정적이고 다소 지루하지 않냐는 질문에 박초롱 선생은 수업과 학회 등 정해진 일정에 맞춰 과제를 수행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간다고 답했다. 지난 겨울에 자료조사를 위해 일본에 다녀온 이후, 5월에 예정된 석사학위 논문 발표를 위해 요즘 추가 작업이 한창인 박초롱 선생은 하반기에도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오히려 수많은 마감 일정을 맞추며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일상 속에서 박초롱 선생이 역사학을 공부하며 몸소 느낀 점은 성실한 자세와 언어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한국 고대사를 공부하다 보면 국내에 남아있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시 동아시아가 공유했던

문화를 참고하기도 합니다. 우리측 사료와 고대 중국 및 일본측 자료들도 함께 읽어 나가며 비교하기 위해 한문은 기본이고 동시대의 연구성과를 참고하기 위해서는 중국어와 일본어, 영어 등 외국어가 필수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를 하는 자세인 것 같아요. 역사학은 어느 연구 분야보다도 성실함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매일 과거의 자료를 읽고 정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과 사회를 대하는 태도에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역사학은 과거의 사실을 밝히는 데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사회와 사람을 읽어내는 학문이기 때문이지요. 저도 노력 중입니다.”

역사가로서의 최종적인 목표를 묻는 질문에 박초롱 선생은 역사 연구란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사료들을 통해 증명하는 과정이기에 성실하게 연구하며 전문가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겸손한 포부를 밝혔다.

“역사 연구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 더 많은 사료를 찾아 읽어보고 가장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언제나 다시 한 번 스스로 반론을 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연구에 매진한 학자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성실하게 연구해 언젠가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대중과 인문학자의 거리를 좁히다

최근 역사를 비롯해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쉬운 인문학 강연과 책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대해 박초롱 선생은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무척 반가운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쉬운 인문학 입문서를 읽고 역사와 철학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이 한 단계 심화된 책을 읽으며 지적 호기심을 풀 수 있도록 여러 층위의 책이 출판되어야 하지만 아직은 대중과 인문학자, 인문 교양서와 고전 사이를 이어줄 다양한 수준의 책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쉽게 풀어쓴 책들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논어에 담긴 지혜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심이 실제로 논어나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책을 읽은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쉬운 책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머무는 것에 만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다양한 수준의 교양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교양 입문서와 전문 연구자들의 연구 사이의 간극이 아직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저도 이런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책을 써 보고 싶습니다.”

Karma & the Pony Chung Foundation

One of the 3rd Pony Chung Scholarship recipients, Park Cho-rong graduated from Ewha Womans University's Department of History, received her master's degree last year, and then started her Ph.D. Even though it will take some time to finish her Ph.D., she is determined to study history more deeply and has decided on her career without hesitation.

“When I started university, I applied to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but after a lot of classes in different departments, I chose the Department of History. I felt history is a field of study in which I can consider the lives of humans and study a wide range of different areas, such as literature, philosophy, and art.”

Park says it was an honor to receive the special scholarship for history students, and expressed her gratitude to the Pony Chung Foundation. “Through the scholarship students’ meeting, I was able to meet other students in the same major from different schools. Most of all, it helped me gain a broader view of the world, as I had a chance to make exchanges with students in architecture and civil engineering. The relationship has continued up until now through these OB meetings. At present, these same people are working or studying in different fields. The meeting was helpful to members—we all gained something just by each other’s presence. For me, that was an invaluable opportunity to expand my network, especially since I carry out my studies alone. When I was an undergraduate student, being a Pony Chung Scholarship student helped me psychologically and economically. Today, I’m growing as a person through regular meetings with former scholarship recipients. In a sense, I’ll always be with the Pony Chung Foundation.”

A busy and dynamic life

When asked whether graduate school, where one is focused on studying, is boring, Park answered that her days pass quite quickly because she has so many classes and conferences to attend. Since returning from Japan for research purposes last winter, Park has been working hard on her master’s thesis, which she is set to submit in May 2014. She has another presentation in the latter half of this year, so Park is busy meeting many deadlines. For her, she feels studying history has taught her that a sincere attitude and language skills are key to her field.

“When I study ancient Korean history, I sometimes refer to East Asian culture, as there aren’t enough historic materials on Korea. In order to compare materials from ancient China and Japan with Korean materials, I need to know basic Chinese characters as well as other foreign languages such as Japanese, and English. But for me, what’s most important is an individual’s attitude. I think history requires more sincerity than many other fields of study. A historian needs sincerity not simply in reading and organizing past materials, but in how they treat people and society. History is a field of study that not only investigates the facts of the past, but reads into people and societies as they are today.”

When asked about her final goal as a historian, Park revealed the modest ambition of playing a role as an expert while she continues studying because studying history means evoking questions and proving facts through source materi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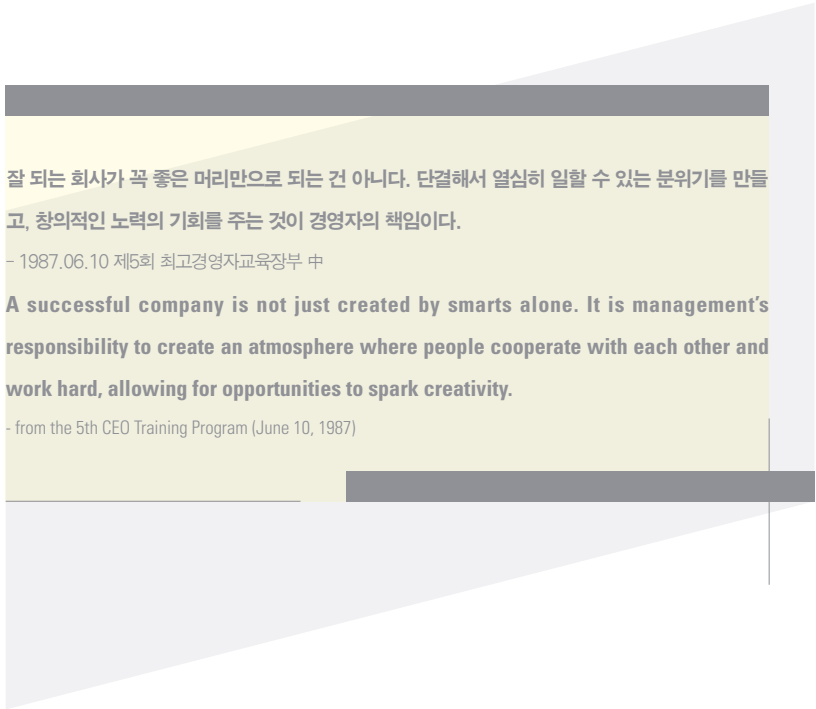
“The study of history is endless. Fundamentally, we need to read as many sources as possible and interpret them in the most logical way. In doing so, however, we always need to come up with counterarguments. Scholars who have studied for a great deal of time seem to have another view of the world. I hope to offer a different view of the world one day by continuing to study history with sincerity.”

Narrowing the gap between the public and humanities scholars

Recently, more accessible versions of humanities lectures and books have become popular in Korea. Park Cho-rong said that she is happy about this trend. However, she pointed out that people who become interested in fields like history and philosophy after easy reading need other books at a little higher level, so various levels of books need to be published. Still, she maintains, we do not have enough books to connect the public with humanities scholars, or popular books with classics in the humanities. “Koreans are becoming interested in the Analects of Confucius and the easy interpretations of the book have become very popular. However, such an interest doesn’t seem to lead them to read books at a higher level. There are many easy books to satisfy readers, but I don’t think we have educational books of diverse levels at this point. I think there is still a big gap between introductory books and specialized studies by scholars. I hope to write a book that can narrow the gap one day.”

# FINANCIAL STATUS OF THE PONY CHUNG FOUNDATION

## 포니정 재단 주요 재무 현황



# Handing down a lifelong philosophy to the next generation

## 평생의 철학을 내일로 잇다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선 ‘좋은 머리’, 즉 훌륭한 인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훌륭한 인재를 확보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창의적인 노력의 기회를 주는 경영자의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정세영 명예회장이 1987년 2월 현대그룹 회장 취임사에서 “회장은 지휘자요, 사장은 반주자, 각급 임원은 파트장이며, 모든 사원은 노래하는 단원입니다”라고 강조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해낼 때, 비로소 잘 되는 회사, 부강한 나라가 완성될 수 있다는 생각. 포니정 재단은 그 평생의 철학을 내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니정 재단은 이를 위해 재단에 출연해 주신 기부자 여러분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공익법인으로서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포니정 혁신상, 학술지

원, 장학금 등 재단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업이 영구히 지속될 수 있도록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니정 재단은 정세영 명예회장의 철학을 계승하고, 기부자 여러분의 뜻을 받들으로써 우리 사회의 창조적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To ensure a company is successful, you need intelligent, talented people. However, success is not guaranteed just because a company has these kinds of employees. Management’s role is to create an atmosphere where people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work hard, allowing for opportunities to spark creativity. That is why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 emphasized, “The chairman is a conductor; the president is an accompanist; executives are the heads of respective musical sections; and employees are the choir members” in his inaugural speech as

the CEO of the Hyundai Group in December 1987. He believed that a successful company—or a powerful country, for that matter—only comes about when everyone does their utmost. Today, the Pony Chung Foundation is instilling this lifelong philosophy in tomorrow’s leaders.

To accomplish this, the foundation values opinions from everyone and continues to work hard in order to secure openness and transparency as a nonprofit organization. The foundation is also working hard to manage its funds efficiently so that its programs, including the Pony Chung Innovation Award, academic support, and scholarships will be around for many years to come. The Pony Chung Foundation will continue to promote Chung Se-yung’s philosophy and respect the thoughts and opinions of others as it lays the foundation for the creative growth of Korean society.

## 01. 출연금

출연자	금액
경신공업, 세종공업, 세지솔로텍, 아이서비스, 아이앤콘스, 아이콘트롤스, 정몽규, 정상영, 한국프렌지, 한무쇼핑, 한일이화, 현대미포조선, 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시멘트, 현대중공업, 현대해상, 현대DSF, 현대EP (가나다順)	23,885,770
(단위: 천 원, 2013년 12월 31일 기준)	

## 02. 재단 재산 보유 현황

구분	금액
기본 재산	22,300,000
보통 재산	900,553
합계	23,200,553
(단위: 천 원, 2013년 12월 31일 기준)	

## 03. 주요 사업 실적

### 03-1. 2013년 부문별 수입 내역

구분	금액
금융 수입이자	853,298
이자소득세 환급	90,172
목적사업용 출연금	10,000
합계	953,470
(단위: 천 원, 2013년 12월 31일 기준)	

### 03-2. 2013년 주요 지출 내역

구분	2013년 실적	누계
목적사업비	606,028	3,556,771
포니정 장학금	332,558	2,011,255
국내 대학 장학금	206,683	1,539,034
베트남 대학 장학금	32,609	219,817
베트남 초청 장학금	29,609	37,618
해외학술탐방	20,157	65,517
예술 장학금	43,500	105,500
북한 이탈 학생 지원		43,770
학술지원사업	102,840	316,240
포니정 혁신상	100,000	700,000
기타 목적사업비	70,631	529,276
지원사업비	59,834	492,691
합계	665,862	4,049,462
(단위: 천 원, 2013년 12월 31일 기준)		

## 01. CONTRIBUTIONS

Contributors	Amount
Kyungshin Corp, Sejong Industrial, SEJI, I-Service, I&CONS, I-CONTROLS, Chung Mong-gyu, Chung Sang-yung, Korea Flange, Han Moo Shopping, Hanil E-wha, Hyundai Mipo Dockyard, Hyundai Department Store, Hyundai Development Company, Hyundai Samho Heavy Industries, Hyundai Cement, Hyundai Heavy Industries, Hyundai Marine & Fire Insurance, Hyundai DSF, Hyundai EP	23,885,770
(Unit: KRW 1,000, as of December 31, 2013)	

## 02. STATUS OF ASSETS

	Amount
Underlying assets	22,300,000
Common assets	900,553
Total	23,200,553
(Unit: KRW 1,000, as of December 31, 2013)	

## 03. FINANCIAL PERFORMANCE

### 03-1. 2013 Revenue, Gains, and Other Support

	Amount
Financial revenue	853,298
Interest tax refund	90,172
Donations for programs	10,000
Total	953,470
(Unit: KRW 1,000, as of December 31, 2013)	

### 03-2. 2013 Major Expenditures

	2013 Expenditures	Accumulated Expenditures
Programs	606,028	3,556,771
Pony Chung Scholarships	332,558	2,011,255
Domestic scholarships	206,683	1,539,034
Vietnamese scholarships	32,609	219,817
Invitation scholarships	29,609	37,618
Global research trip	20,157	65,517
Art scholarships	43,500	105,500
Support for students from North Korea		43,770
Academic Grants	102,840	316,240
Pony Chung Innovation Award	100,000	700,000
Other programs	70,631	529,276
Other support	59,834	492,691
Total	665,862	4,049,462
(Unit: KRW 1,000, as of December 31, 2013)		





# HISTORY

## OF THE PONY CHUNG FOUNDATION

Founded in memory of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 and his unrelenting spirit, the Pony Chung Foundation is like a Möbius strip, connecting the future and the past so that the value of innovation remains endless. His quintessential belief that the future is not something to wait around for, but something that has limitless potential and should be explored is constantly growing and being reproduced through the Pony Chung Foundation. Today, this same belief is also fostering future leaders and talents through scholarships and the annual Pony Chung Innovation Award.

- from *The Pioneer Pony Chung's Dream Goes On*, a book marking the 5th anniversary of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s death

01	04
02	05
03	06
	07

01. 2007. 09. 제1회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 (수상자 반기문 UN 사무총장)

02. 2011. 11. 2011 포니정 재단 베트남 장학증서 수여식

03. 2012. 05. 제6회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  
(수상자 김범수 (주)카카오 이사회 의장)

04. 2012. 12. 2013 포니정 재단 장학증서 및 학술지원증서 수여식

05. 2013. 06. 제7회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  
(수상자 석지영 하버드 로스쿨 종신교수)

06. 2013. 11. 2013 포니정 재단 베트남 장학증서 수여식

07. 2013. 12. 2014 포니정 재단 장학증서 및 학술지원증서 수여식

01. 2007. 09. 1st Pony Chung Innovation Award given out  
(Honoree: Ban Ki-moon, UN Secretary-General)

02. 2011. 11. Awarded scholarships to students at two Vietnamese national universities

03. 2012. 05. 6th Pony Chung Innovation Award given out  
(Honoree: Kim Beom-su, Chairman, KAKAO Inc.)

04. 2012. 12. Held an awards ceremony for 2013 scholarship and academic grant recipients

05. 2013. 06. 7th Pony Chung Innovation Award given out  
(Honoree: Jeannie C. Suk, tenured Professor, Harvard Law School)

06. 2013. 11. Awarded scholarships to students at two Vietnamese national universities

07. 2013. 12. Held an awards ceremony for 2014 scholarship and academic grant recipients

“정세영 명예회장의 뜻을 기려 세워진 포니정 재단은

미래와 과거가 평면으로 이어진 뫼비우스의 띠, 개혁

과 혁신의 가치가 끝없이 이어지는 무한궤도의 공간

이다.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개혁하

는 것, 뫼비우스의 띠를 타고 위대한 가치로 확대 재

생산되는 불멸의 신념은 지금도 Scholarship으로,

Innovation Award로 연연히 계승되어 미래의 리더

와 동량을 예견하고 자리매김한다.”

- 정세영 명예회장 5주기 추모집 (꿈과 희망을 남긴 선구자  
포니정 그의 꿈은 계속된다) 中





## 꿈은 곧 미래다

“지난 세월 동안 나는 가급적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해왔으며 공평하고 곧은 길을 지향하는 정도경영을 소신으로 삼아왔다. 원칙을 지키는 경영을 지향한다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 돌아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길, 그 길이 곧았다면 앞으로도 나는 곧은 길을 걸을 것ियो, 그 길을 달리는 내 차 또한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00년 11월 발간된 자서전 <미래는 만드는 것이다>에 수록된 정세영 명예회장의 말입니다. 평생 혁신을 추구하며 기업 경영과 국가 발전에 헌신했던 그는, 원칙에 어긋나는 일엔 처음부터 발을 디디지 않았고, 아무리 어려운 역경에 처해도 다른 데 눈 돌리는 법 없이 정도경영의 길만을 고집했습니다.

또한 “깊은 통찰과 예지력으로 혁신적인 목표를 정하여 원칙을 지켜 매진한다면, 어느덧 세상은 우리를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라 생각했고,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개척하는 것”이란 믿음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불가능한 꿈조차도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고민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며, 과감하게 실행해 나간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꿈과 미래는 그에게 다른 말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에 품었던 간절한 꿈, 웅대한 포부가 마침내 실현되는 때가 바로 미래였습니다. 그렇게 정세영 명예회장은 평생에 걸쳐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거듭하며 미래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 그의 꿈은 계속된다

2005년 설립된 포니정 재단은 이와 같은 정세영 명예회장의 원칙과 소신을 굳건히 지키고, 그의 웅대한 포부와 꿈을 널리 실현하는 곳입니다. 포니정 재단의 모든 활동은 정세영 명예회장의 철학에서 출발합니다. 매년 혁신의 꿈을 과감한 도전정신으로 현실에 옮긴 우리 시대의 혁신가에게 포니정 혁신상을, 기초학문인 인문학의 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젊은 학자들에게 포니정 학술지원의 혜택을, 역경과 난관을 딛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날갯짓 하는 학생들에게 포니정 장학금을 수여해 온 것도, 정세영 명예회장이 그토록 강조했던 혁신과 도전, 미래를 향한 꿈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 지난 9년여 간 총 8팀의 혁신가가 포니정 혁신상을, 총 11팀의 인문학 분야 교수 및 연구자들이 포니정 학술지원을, 총 260명의 국내 대학생과 총 380명의 베트남 대학생이 포니정 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포니정 재단은 우리 사회,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서 한 톨의 밑일이 되어 주변을 환하게 밝혀 나가고 있는 이들 혁신가와 학자, 대학생들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또한 이들이 만들어나갈 밝은 미래를 믿고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포니정 재단은 정세영 명예회장이 뿌리고 간 혁신과 도전의 꿈, 원칙 중심의 리더십과 정도경영의 소신, 미래의 동량인 인재 양성의 철학을 지키고 계승하며, 널리 전파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포니정의 꿈이 살아있는 한,**

**포니정 재단의 꿈도 계속됩니다.**

- 2005. 10. 주무관청 설립 허가
- 2005. 11. 관할법원(서울지방법원 삼성등기소) 등기 완료
- 2006. 04. 포니정 혁신상 협약식 개최(매일경제신문사)
- 2006. 05. 고 정세영 명예회장 추모집 발간
- 2006. 05. 고 정세영 명예회장 흉상 제막식
- 2006. 12. 2006년 장학증서 수여(장학생 52명)
- 2007. 09. 제1회 포니정 혁신상 시상(수상자: 반기문 UN사무총장)
- 2007. 10. 베트남 장학사업 MOU 체결 및 장학금 수여(20명)
- 2007. 12. 2007년 장학증서 수여(장학생 33명)
- 2008. 05. 포니정홀 개관
- 2008. 05. 제2회 포니정 혁신상 시상(수상자: 서남표 KAIST 총장)
- 2008. 10. 베트남 대학 장학금 수여(60명)
- 2008. 12. 2008년 장학증서 및 학술지원증서 수여  
(장학생 24명, 학술지원교수 2명)
- 2009. 05. 제3회 포니정 혁신상 시상(수상자: 가나안농군운동세계본부)
- 2009. 11. 베트남 대학 장학금 수여(60명)
- 2009. 12. 2009년 장학증서 및 학술지원증서 수여  
(장학생 24명, 학술지원교수 2명)
- 2010. 05. 제4회 포니정 혁신상 시상(수상자: 차인표, 신애라 부부)
- 2010. 11. 베트남 대학 장학금 수여(60명)
- 2010. 12. 2011 장학증서 및 학술지원증서 수여식 개최  
(장학생 30명, 학술지원교수 2팀)
- 2011. 07. 제5회 포니정 혁신상 시상  
(수상자: 장하준 University of Cambridge 교수)
- 2011. 11. 베트남 대학 장학금 수여(60명)
- 2011. 12. 2012 장학증서 및 학술지원증서 수여식 개최  
(장학생 30명, 학술지원교수 2팀)
- 2012. 05. 제6회 포니정 혁신상 시상  
(수상자: 김범수 (주)카카오 이사회 의장)
- 2012. 11. 베트남 대학 장학금 수여(60명)
- 2012. 12. 2013 장학증서 및 학술지원증서 수여식 개최  
(장학생 30명, 학술지원연구자 1명)
- 2013. 06. 제7회 포니정 혁신상 시상  
(수상자: 석지영 하버드 로스쿨 종신교수)
- 2013. 11. 베트남 대학 장학금 수여(60명)
- 2013. 12. 2014 장학증서 및 학술지원증서 수여식 개최  
(장학생 30명, 학술지원연구자 2명)
- 2014. 07. 제8회 포니정 혁신상 시상  
(수상자 : 김연아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 DREAMS REPRESENT THE FUTURE

In his autobiography, *The Future Is Made* (2000),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 wrote: “For the past few years I’ve tried to carry out my work in a principled fashion, and have believed in *jeongdo* [righteous, uncorrupt management] to pursue the correct way of doing business. I believe that we can overcome any adversity if we pursue principled management.” Indeed, Chung devoted himself to the management of companies and the development of Korea, while also pursuing innovative initiatives throughout his life. At the same time, he never started anything that went in violation of principled management, and instead stuck to *jeongdo* management no matter how great the challenge or adversity he was facing.

Chung also thought that if we strive to achieve innovative goals and make use of profound insight and a clear vision—while also following a principled management philosophy—we will succeed. Thus, Chung personally put his own belief—that the future should be explored—into practice. He believed that no dream was too big. For him, the words “dream” and “future” were no different from each other, as the future was the very time when one’s dreams came to life. Chung continued to shape his own future through hard work and determination over the course of his entire life.

## THE DREAM LIVES ON

Established in 2005, the Pony Chung Foundation was established to preserve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s beliefs and business philosophy, and to make all of his ambitious dreams a reality. Every year, the foundation presents the Pony Chung Innovation Award to a select innovator who has turned innovative dreams into reality. We also provide academic support for young scholars who are devoted to the humanities and liberal arts, and offer scholarships to students who are making their dreams come true while overcoming adversity and constant challenges. All of these measures are being taken to support and encourage innovation, a pioneering spirit, and a dream of the future that Chung emphasized his whole life. Since 2005, a total of eight individuals/groups of innovators have received a Pony Chung Innovation Award, eleven groups of professors and researchers have received academic support, and 260 Korean university students and 380 Vietnamese university students have received scholarships from the Pony Chung Foundation.

The Pony Chung Foundation will continue to build on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s dream as an innovator and as a pioneer, his belief in principle-oriented leadership and *jeongdo* management, and his philosophy concerning the fostering of talented people for the future.

**AS LONG AS HONORARY CHUNG'S  
DREAM REMAINS ALIVE, THE PHONY CHUNG  
FOUNDATION'S DREAM ALSO LIVES ON.**

- 2005. 10. Establishment authorized by the required authorities
- 2005. 11. Completion of registration in court  
(Seoul District Court, Samsung Registry Office)
- 2006. 04. Held an agreement convention for the Pony Chung Innovation Award  
(Maeil Business Newspaper)
- 2006. 05. Published a memorial booklet to commemorate the late Chairman Chung Se-yung
- 2006. 05. Held the unveiling ceremony for a bust sculpture of the late Chairman Chung Se-yung
- 2006. 12. Held an awards ceremony for 1st scholarship recipients (52 students)
- 2007. 09. 1st Pony Chung Innovation Award given out  
(Honoree: Ban Ki-moon, UN Secretary-General)
- 2007. 10. Signed an MOU with Vietnam National University on scholarship programs, with the school’s first scholarships then given out (20 students)
- 2007. 12. Held an awards ceremony for 2nd scholarship recipients (33 students)
- 2008. 05. Opening of Pony Chung Hall
- 2008. 05. 2nd Pony Chung Innovation Award given out  
(Honoree: Suh Nam-pyo, President of KAIST)
- 2008. 10. Awarded scholarships to students at Vietnam National University  
(60 students)
- 2008. 12. Held an awards ceremony for 2008 scholarship and academic grant recipients (24 students, 2 professors)
- 2009. 05. 3rd Pony Chung Innovation Award given out  
(Honoree: World Headquarters of Canaan Farmers Movement)
- 2009. 11. Awarded scholarships to students at two Vietnamese national universities  
(60 students)
- 2009. 12. Held an awards ceremony for 2009 scholarship and academic grant recipients (24 students, 2 professors)
- 2010. 05. 4th Pony Chung Innovation Award given out  
(Honorees: Cha In-pyo and Shin Ae-ra Couple)
- 2010. 11. Awarded scholarships to students at two Vietnamese national universities  
(60 students)
- 2010. 12. Held an awards ceremony for 2011 scholarship and academic grant recipients (30 students, 2 professors)
- 2011. 07. 5th Pony Chung Innovation Award given out  
(Honoree: Chang Ha-joon, Professor, University of Cambridge)
- 2011. 11. Awarded scholarships to students at two Vietnamese national universities  
(60 students)
- 2011. 12. Held an awards ceremony for 2012 scholarship and academic grant recipients (30 students, 2 professors)
- 2012. 05. 6th Pony Chung Innovation Award given out  
(Honoree: Kim Beom-su, Chairman, KAKAO Inc.)
- 2012. 11. Awarded scholarships to students at two Vietnamese national universities  
(60 students)
- 2012. 12. Held an awards ceremony for 2013 scholarship and academic grant recipients  
(30 students, 1 Ph.D. graduate)
- 2013. 06. 7th Pony Chung Innovation Award given out  
(Honoree: Jeannie C. Suk, tenured Professor, Harvard Law School)
- 2013. 11. Awarded scholarships to students at two Vietnamese national universities  
(60 students)
- 2013. 12. Held an awards ceremony for 2014 scholarship and academic grant recipients  
(30 students, 2 Ph.D. graduates)
- 2014. 07. 8th Pony Chung Innovation Award given out  
(Honoree : Yuna Kim 2010 Vancouver Winter Olympics Gold Medalist)

# PONY CHUNG INNOVATION AWARD RECIPIENTS

## 포니정 혁신상 역대 수상자 소개

참 무섭게 경쟁합니다. 포드, 지엠, 크라이슬러 하는 걸 좀 보세요. 서로 뭐 죽기 살기로 하잖아요. 다 그래요. 여기에서 그 목적을 성취함으로 해서 보람이 있다고요. 어렵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요. 쉬운 거야 누가 못해요? 아무나 다하는 건데.

- 정세영 명예회장

The competition is truly frightening. Look at Ford, GM, and Chrysler. They're working with a do-or-die attitude and only feel a sense of achievement when they fulfill their goals. I think it's good when something is difficult to do. Anyone can do something that's easy. - Chung Se-yung

### 쉬운 건 혁신이 아니다

혁신이란 세상에 없던 길을 만들어 나가는 일입니다. 아무도 가능할 거라 예상치 못했던 일을 기어이 해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쉬운 리 없습니다. '그건 절대 안돼', '괜히 안 되는 일에 힘 빼지 마' 같은 부정적인 말들이 횡행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스스로 될 거라, 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하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해낼 수 있을까?' 열심히 골몰하면, 방법은 생깁니다. 완벽한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정세영 명예회장은 언제나 "깊은 통찰과 예지력으로 혁신적인 목표를 정하여 원칙을 지켜 매진한다면, 어느덧 세상은 우리를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고, 더 과감히 도전했으며, 마침내 혁신을 일구어냈습니다. 어려운 일이라 더 좋아했고, 더 혁신에 매진했으며, 평생 혁신의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포니정 혁신상은 이 같은 정세영 명예회장의 혁신에의 의지와 꿈을,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니정 혁신상 역대 수상자들과 함께.

### INNOVATION IS NEVER EASY

Innovation is about building a road where no such road existed before. We call it innovation when someone succeeds in doing what everybody else thought was impossible. In short, innovation is never easy. However, the fact that it is difficult does not mean you cannot do it. If you believe that you can do it, and devote yourself to finding a way to make it a reality, you will indeed find a way to make it happen. Nothing in this world is completely impossible. Chung always believed that if we strive to achieve innovative goals, while making use of profound insight, a clear vision and a principled philosophy, we will succeed.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 enjoyed working hard on challenging tasks, which is how he achieved so many new innovations. To this day, the Pony Chung Innovation Award continues to develop such a strong determination in others, especially young people.

### 세상에 없던 혁신을 현실로 만든 이들

2007

**제1회 수상자**

**반기문 UN사무총장**

세계 평화와 번영의 수호자가 되다 - 충청북도 음성군의 시골마을에서 태어나 전 세계를 대표하는 UN사무총장의 자리에 오른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삶은, 혁신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외교관이 되겠다는 꿈을 놓지 않았고, 고등학교 시절 단 4명만 뽑는 '외국학생의 미국 방문 프로그램(VISTA)'에 선발돼 케네디 대통령을 직접 접견할 정도로 출중한 외국어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인류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1970년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과 동시에 외무고시에 합격, 그토록 바라던 외교관의 꿈을 이룬 그는, 37년 동안 아시아, 미주, 유럽 등의 외교 요직을 두루 거치며 외교 활동을 펼쳤고,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비서관, 외교통상부 장관 등을 역임하며 우리나라의 외교 선진화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또한 2006년 10월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UN 사무총장에 선출됨으로써, 대한민국 외교사에 큰 이정표를 남겼을 뿐 아니라, 한국인의 저력을 세계 만방에 떨쳤습니다. 2011년 UN사무총장에 다시 한 번 선출됨으로써 자신의 탁월한 역량을 입증한 반기문 사무총장.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인 그의 혁신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2008

**제2회 수상자**

**서남표 KAIST총장**

대한민국 학계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다 - 서남표 KAIST총장은 우리 학계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킨 혁신의 대표주자입니다. 그는 미국 MIT대학교 기계공학 석사, 카네기 멜론 대학교 기계공학 박사, 시우스 캐롤라이나 대학교 교수와 모교인 MIT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공리를 이용한 생산·설계이론의 창시자로 기계공학 분야의 혁신을 이루었으며, 이후 플라스틱 제조공정, 금속 제조공정, 마모이론, 설계이론 등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음으로써, 1987년 미국과학재단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국가공학자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1991년부터 2001년까지 10여 년간 MIT대학교 기계공학과 학과장을 지내면서 시도했던 다양한 변화들을, 2006년 KAIST총장 부임 이후 적극적으로 도입한 그는, 10년 이내에 KAIST를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진입시켰다는 확실한 목표 하에 대대적인 교육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유지되어온 교육 공급자 중심의 대학 조직 틀을 깨는 혁신적인 변화를 유도했으며, 우리 학계에 변화와 세계화라는 발전적인 화두를 던졌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으로 한국인의 우수성을 몸소 보여줬으며, 우리나라 대학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한 혁신의 대명사. 서남표 KAIST총장입니다.

2009

**제3회 수상자**

**가나안농군운동세계본부(총재 김법일)**

전 세계에 생활밀착형 혁신운동을 전파하다 - 가나안농군운동세계본부는 한국의 농촌 부흥과 근대화, 의식개혁운동을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확대한 생활밀착형 혁신운동의 대명사입니다. 1967년 일가(一家) 김용기 선생이 설립한 가나안농군학교가 모태이며, 근로, 봉사, 학생의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근검 절약하는 생활자세와 강인한 개척정신을 강조하는 의식개혁운동을 지구촌 곳곳에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1991년 방글라데시를 시작으로 필리핀, 미얀마, 중국 등 현재까지 총 8곳에 가나안농군학교를 설립한 가나안농군운동세계본부는, 빈곤층에 척박한 땅을 옥토로 개간하는 방법을 전수하는 등 자립정신과 개척정신을 전파해 나가고 있으며, 인도, 라오스, 캄보디아, 가나, 우간다 등에도 농군학교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가나안농군운동세계본부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특히 가난과 기아로 고통 받는 개발도상국에 희망과 꿈의 가치를 일깨우고 있으며, 한국인의 박애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는 통로도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포니정 혁신상 수상 당시, "1989년 가나안운동 참시자인 김용기 선생의 타계 1주년 무렵, 원주 제2가나안농군학교를 방문해 전달했던 정세영 명예회장의 조의금이 방글라데시 농군학교가 세워지는 종자돈으로 쓰여졌다"고 밝혔던 가나안농군운동세계본부. 이들의 세계 속 생활혁신운동은 지금도 지구촌 곳곳을 희망으로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010

**제4회 수상자**

**차인표, 신애라 부부**

나눔의 가치를 몸소 입증하다 - 1995년 부부의 연을 맺은 차인표, 신애라 부부는 왕성한 연기활동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 나눔의 아름다운 가치를 전파하는 나눔의 대명사이자 롤 모델입니다.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아이티, 볼리비아, 필리핀 등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의 불우한 어린이 24명, 대학생 8명과 1대1 결연을 맺고 이들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고 있을 뿐 아니라, 굿네이버스, 한국컴패션, 대한사회복지회 등 대표적인 아동후원기관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컴패션을 통해 우간다 태아·영아 생존 프로그램 지원금 1억원, 인도 오릿사 지역 피해복구금 5,000만원을, 아이티 지진 긴급 복구기금으로 1억원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기부 및 후원 활동으로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2005년과 2008년,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두 명의 아이를 공개 입양해 자신들이 낳은 아들과 함께 사랑으로 키우고 있는 이들 부부는, 입양에 대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을 없애는 데도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변함 없는 봉사와 기부 활동으로 우리 사회에 나눔의 가치를 전파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 차인표, 신애라 부부. 이들의 나눔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앞당기는 변화와 혁신의 시작입니다.



2011

## 제5회 수상자

### 장하준 University of Cambridge 교수

세계 경제학의 지평을 넓히다 -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교 경제학과 교수는 실사구시적인 관점에서 세계 경제 위기

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경제학 분야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리카도의 비교우위를 접하면서 경제

학에 관심을 갖게 된 그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수학한 후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이수했으며, 1990년 스물 일곱의 나이에 모

교인 케임브리지 경제학과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

간 100여 편의 논문과 13권의 저서를 집필하고, 10권의 책을 엮어내는 등

탁월한 학문적 성과로 한국인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여 왔습니다.

특히 그는 과거 한국 정부가 성공적으로 시행했던 산업정책과 보호무역, 수

출 드라이브 정책 등이 어떻게 기업과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했는지를 이론

적으로 규명했으며, 이를 통해 ‘보호무역이나, 자유무역이나’와 같은 양자택

일의 관점을 거부하고 개발도상국 또는 후발공업국들은 자신의 경제 성장

단계에 맞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2003년

‘신고전학과 경제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뮌헨달상

에 이어, 2005년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레온티에

프상을 최연소로 수상한 것은, 모두 이 같은 학문적 성과를 세계가 주목한 덕

분입니다. 또한 그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국제연합(UN) 산하의 11

개 국제기구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트남 등의 정부기관과 시민단체의 자

문 역할을 하며 후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는 등 실천하는

지식인, 자랑스런 한국인의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2012

## 제6회 수상자

### 김범수 (주)카카오 이사회 의장

IT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다 - 김범수 (주)카카오 이

사회 의장은 PC 기반 웹 시대의 도래를 예측, 온라인 게임과

포털 사이트 등의 영역을 석권했을 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앱 ‘카

카오톡’의 개발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대중화에 앞장서는 등 IT 분야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IT 업계의 대표적인 혁신가입니다. 1998년 한게임을 설립해 바

둑, 장기, 포커, 고스톱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온라인에 적

용시켰으며, 네이버를 대한민국 최고의 검색 포털 사이트 반열에 올려놓았습

니다. 또한 스마트폰 기반의 카카오톡을 개발, 출시 2년 만에 전 세계 사용자

4,200만 명을 돌파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로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버금가는

글로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범수 의

장이 PC 기반의 웹 시대와 모바일 시대를 석권한 대한민국 최초의 인물, ‘한

국의 스티브 잡스’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신개념 기업 마케팅 창구인 카카오플러스 친구, 카카오톡을 활용

한 다양한 게임 등 새로운 서비스를 속속 개발, 스마트폰 기반의 혁신적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있는 김범수 의장. 그는 앞선 해안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

는 도전정신을 겸비한, 능력 있는 벤처 기업인을 발굴해 후원하는 등 IT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3

## 제7회 수상자

### 석지영 Harvard Law School 종신교수

도전하고 융합하다 - 석지영 교수는 학문에 대한 열정과

끊임 없는 도전으로 아시아계 여성 최초의 하버드 로스쿨 중

신교수로 선출되는 등 이 시대 최고의 여성 법학자로 존경 받고 있습니다.

줄리어드 예비학교에서 피아노를, 예일대에서 영문학과 프랑스문학을 전

공한 석지영 교수는 옥스퍼드대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하버드 로스

쿨에 진학해 미국 대법원 법률 서기, 뉴욕 맨해튼 검찰청 검사로 재직하는

등 늘 새롭게 도전하며 범상치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특히 2006년 한국

계 최초로 하버드 로스쿨 교수에 임용된 석지영 교수는 임용된 지 4년만인

2010년, 아시아계 여성 최초로 종신교수로 선출되며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또한 저서 <법의 재발견>으로 2010년 ‘허버트 제이콥 상’

을 수상한 석지영 교수는 학문에 대한 열정과 혁신적인 사고로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예술 분야와 법을 접목시킨 참신한 강의 내용과 교수법으로 호평 받고

있는 석지영 교수는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드는 곳 하버드에서 젊은 혁신가 양

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PEOPLE WHO MADE UNKNOWN INNOVATIONS A REALITY

2007

## 1ST RECIPIENT

### Ban Ki-moon, UN Secretary General

A bulwark of world peace and prosperity - Ban Ki-

moon was born in a small village in Eumseong and became

UN Secretary General in 2007.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his life is the

very definition of innovation. Despite growing up in poverty, he chose a path not

many people can imagine, working hard over the years to become a successful

diplomat. When he was in high school, he was selected to participate in a

program to visit the United States (VISTA) with three other applicants to meet

President Kennedy due in no small measure to his excellent command of English.

This experience gave him the resolve to make his philanthropic dream a reality

and to one day serve the world. In 1970, Ban passed Korea's Foreign Service

Examination, which corresponded almost exactly with his graduation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s Department of Diplomacy. Over the next 37 years,

Ban contributed to the advancement of Korea's foreign affairs as a diplomat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the U.S. and Europe, while also serving in

important positions over that time such as the president's Chief Secretary for

Foreign Security and Minister of Foreign Affairs. With a strong understanding

about conflicts among the world's super powers, he was named the 8th UN

Secretary General in October 2006, an unprecedented milestone in the history of

Korean diplomacy. Reelected to his post in 2011, Ban has not stopped working

tirelessly for global peace, prosperity, and security, thereby continuing with his

own innovation efforts.

2008

## 2ND RECIPIENT

### Suh Nam-pyo, President of KAIST

Bringing innovative changes to Korean academia -

Dr. Suh Nam-pyo served as president of th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from July 2006 to February 2013

and is a well-known innovator in Korean academia. He is also one of Korea's

leading scientists. After earning his master's degree in mechanical engineering

at MIT and his Ph.D. at Carnegie Mellon University, he served as a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and at MIT. As the methodology developer of

axiomatic design, he helped innovate the field of mechanical engineering and

later made notable achievements with the plastic manufacturing process, metal

manufacturing process, wear and tear theory, and design theory. In 1987, Suh

was named Federal Engineer of the Year by the U.S. National Science Foundation.

From 1991 to 2001, he was head of MIT's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Later, when he became president of KAIST in 2006, he introduced various

changes to the school by drawing on his experience at MIT. This ultimately

brought about large-scale educational innovation at KAIST, with the goal of

making Korea's top post-secondary science university into one of the world's

top 10 universities within 10 years. This led to innovative changes that broke

the mold in Korea's university system, which had put education providers at the

center of learning efforts—and not students—for several decades, while also

shedding light on changes in Korean academia and its subsequent globalization.

2009

## 3RD RECIPIENT

### World Headquarters for the Canaan Farmers Movement (President Kim Bum-il)

Promoting innovation in everyday life across the world

- The world headquarters for the Canaan Farmers Movement represents an

innovative movement which grew from a Korean movement to revive and

modernize rural villages to one which spread throughout Asia and Africa. The

headquarters was founded on the principles of the Canaan Farmers School,

which was first established in 1967 by Kim Yong-ki. The organization promotes

a spirit of frugality and a regional pioneering effort based on hard work,

volunteerism, and sacrifice. Since then, the organization has established a total

of eight overseas Canaan Farmers Schools, starting with Bangladesh in 1991,

and later moving on to countries such as the Philippines, Myanmar, and China,

all the while teaching local residents how to transform barren wastelands into

fertile pastures. The organization has further plans to establish schools in India,

Laos, Cambodia, Ghana, and Uganda.

Today, the organization promotes awareness connected with the value of

hope and dreams in underdeveloped countries suffering from poverty and

starvation around the world. A representative from the world headquarters for

the Canaan Farmers Movement once said, "When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 visited us in 1989 and made a donation to our organization in memory

of our late founder Kim Yong-ki, we used it as seed money to build a Canaan

Farmers School in Bangladesh." To this day, the organization's innovation of the

everyday life movement is providing hope to people around the world.

2010

## 4TH RECIPIENT

### Cha In-pyo & Shin Ae-ra Couple

Highlighting the value of sharing - Cha In-pyo and Shin

Ae-ra got married in 1995 and have since become role models

who take pride in spreading the value of sharing. By establishing one-on-one

support relationships with 24 underprivileged children and eight university

students in Ethiopia, Kenya, Uganda, Haiti, Bolivia, and the Philippines, the

couple helped provide hope to all these people and their families. Cha In-

pyo and Shin Ae-ra are making dreams come true for many children around

the world by serving as honorary ambassadors in programs such as Good

Neighbors, Compassion South Korea, and Social Welfare Society Inc. They

have also been more than generous financially, donating KRW 100 million to

fetus and infant survival programs in Uganda, KRW 50 million to recovery aid

in Orissa, India (both via Compassion South Korea), and KRW 100 million for

recovery aid to Haiti after the devastating earthquake in 2010.

While raising two daughters whom they adopted in 2005 and 2008, the couple has

continued to carry out volunteer work alongside their son. This has also helped

eliminate the previously held stigma against adoption and adoptees in Korea.

Cha In-pyo and Shin Ae-ra's consistent volunteering and donations have inspired

Korean society and brought positive changes throughout the world, providing a

starting point of change and innovation for a healthier, more enriched society.



2011

5<sup>TH</sup> RECIPIENT**Ha-joon Chang, Professor, University of Cambridge****Innovating economics on an international level** -

Professor Ha-joon Chang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 is an internationally renowned scholar who analyzes the causes of global economic crises from an empirical perspective, while providing solutions to these challenges at the same time. He became greatly interested in economics after learning about David Ricardo's 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s in high school. After earning his bachelor's degree through Seoul National University's Department of Economics, he completed his master's and Ph.D. degrees at the University of Cambridge. In 1990, he was appointed professor of economics at Cambridge at the age of 27. Since then, he has published more than 100 papers and 13 books, and served as a contributor to another 10 books.

Over the years, Chang has theoretically defined how the Korean government's successful industrial, protectionist, and export-oriented development policies hav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companies and industries. Based on this, he came up with a new point of view, one in which developing countries (or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should reject choosing between protectionism and free trade, and instead pursue specific strategies fit for their specific economic growth. His academic achievements have led to him being awarded the European Association for Evolutionary Political Economy's 2003 Gunnar Myrdal Prize and the 2005 Wassily Leontief Prize for Advancing the Frontiers of Economic Thought from the Glob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 Institute (for which he was the youngest recipient ever). Chang has also served as a consultant to the World Bank, the Asian Development Bank, and 11 international organizations under the UN, as well as government agencies and civic groups in Brazil, Argentina, and Vietnam, helping developing countries grow economically.

2012

6<sup>TH</sup> RECIPIENT**Kim Beom-su, Chairman, KAKAO Inc.****Expanding Korea's IT prowess** - Kakao Corporation chairman Kim Beom-su is a leading innovator in the IT industry.

He not only predicted how influential the Internet would become in people's lives earlier than others, with a business that now covers online games and portal sites, but also took the initiative in popularizing easy communication by developing a smartphone-based application called Kakao Talk. In 1998, Kim established Hangame, offering users numerous different games online before coming up with the idea for the portal site Naver, which is today Korea's most popular web portal. With Kakao Talk, Kim has seen an explosive growth in users, surpassing 42 million people in two years, and creating a social media

sensation in Korea. The country's very own Steve Jobs, Kim is seen by many as the first person who conquered both Korea's Internet and mobile markets. In the meantime, Kim has continued to develop new services, including a marketing tool called Kakao Talk Plus Friend, and a wide variety of games using Kakao Talk, which has helped bring about an innovative revenue stream through smartphones. Kim has also increased Korea's IT prowess by supporting talented venture businesspeople with forward-looking insight and a pioneering spirit.

2013

7<sup>TH</sup> RECIPIENT**Jeannie C. Suk, Tenured Professor at Harvard Law School**  
**Confronting Challenges and Pursuing Convergence** -

Professor Jeannie C. Suk is highly respected as one of the most preeminent legal experts today. She studied piano at Juilliard, English Literature and French Literature at Yale before she received her Ph.D. in French Literature at Oxford. Then, she attended Harvard Law School, clerked for Justice o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and worked as a prosecutor in Manhattan, New York. She has been an innovator throughout her life. Especially, she was paid great attention to by the world when she became the first Korean American appointed as a professor at Harvard Law School in 2006 and was also the first Asian woman to become tenured there just four years later. Also, she is the author of 『At Home in the Law』, which won the 2010 Herbert Jacob Book Prize. Professor Suk became a great example for our society with her passion for studies and innovative way of thinking. Her classes are acclaimed for creative contents and methods to combine law with various fields of art, and she is working hard to educate young innovators at Harvard where great scholars gather from around the world.

## PONY CHUNG ACADEMIC GRANT RECIPIENTS

## 포니정 학술지원 역대 수상자 소개

자동차 회사의 본질은 좋은 차, 즉 품질이다. 품질이 제일 좋으면 전통은 물론 결국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자동차 회사가 되는 것이다. - 정세영 명예회장 자서전 〈미래는 만드는 것이다〉中

The essence of an automobile is quality, and quality comes from sincerity. All of this responsibility concerning quality lies with top management. The essence of a successful automaker comes down to excellent automobiles, or, put another way, quality. When a car company achieves the highest quality, there is no doubt it will become the world's leading automaker. - from Chung Se-yung's autobiography, *The Future Is Made* (2000)

## 기초학문이 미래를 만든다

좋은 차를 가름하는 기준은 품질입니다. 그리고 좋은 품질은 기본이 제대로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탄생합니다. 정세영 명예회장은 이 단순 불변의 법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회사의 본질은 품질이고, 품질이 제일 좋으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자동차 회사가 된다”고 굳게 믿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선 기초를 다지는 일이 필수입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좋은 집도 소용이 없습니다. 학문 역시 그러합니다. 기초학문의 발전 없이 응용학문의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초부터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나갈 때 비로소 더 넓은 학문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포니정 재단의 학술지원이 주목한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기초학문은 모든 학문과 국가 발전의 기본으로, 기초학문의 발전은 곧 응용학문의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는 믿음, 긴 호흡에서 기초학문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믿음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6년 여 동안 쌓아온 이 같은 믿음은 역사학 및 인문학 분야의 빛나는 성과로 학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니정 재단은 기본에 충실하고 인재를 중시했던 정세영 명예회장의 철학 그대로, 기초학문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FUNDAMENTAL STUDIES ENSURE A SUCCESSFUL FUTURE

The standard of a good car is quality. And high quality is acquired only when the fundamentals are properly dealt with in the production process.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 knew this truism better than anyone else. The same rule of valuing fundamentals can be applied to studies. If you do not develop rock-solid fundamental studies, you will never bring about applied studies. When people accumulate fundamental knowledge on a step-by-step basis, they can successfully advance into the wider world of academia. The Pony Chung Foundation understands this point very well and believes that we should invest more resources on a long-term basis into fundamental studies, providing a foundation for further studies and the continuous growth and development of Korea. Over the past six years, this belief has translated into brilliant achievements in the fields of history and the humanities. In line with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s philosophy of valuing fundamentals and talented people, the Pony Chung Foundation will continue to fully support the development of fundamental studies in a bid to make Korea even stronger in the future.

## 기초학문의 발전을 이끈 사람들

2009

### 제1회 수상자

#### 연세대학교 사학과 최윤오 교수

##### 동아시아 역사적 도시공간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18~19세기 중세 말 한국 농촌의 해체와 서울 도시로의 집중이 한국 근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장기적으로 추적한 연구입니다. 조선 후기 전통 시장이 제국주의 열강의 상품 침투에 직면하면서 맞이하게 된 자본과 시장의 재편 과정을, 장시 유통망과 연안 포구 유통망의 확대와 쇠락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도시 발달이 가져온 농민층의 몰락과 이들이 노동자로 변화하는 과정을 지역별로 비교·분석했으며, 다양한 사례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존재 형태와 중세 말 농촌 해체 양상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층 농민의 대량 확산 문제는 새로운 근대 도시 건설과 체제 개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으며, 도시는 한국적 시장 특성에 따라 형성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정혜중 교수

##### 근대 동아시아 여성들의 해외 유학과 사회적 역할

19세기 말 20세기 중반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여성들의 해외 유학과 그들의 사회적 활동을 비교사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여성 유학생들의 기초조사를 함께 진행한 연구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와 서양 열강의 영향을 받은 당시 한국과 중국의 여성 유학생들은, 전통적 질서에서의 여성해방, 교육권·참정권 확보라는 보편적 요구 외에도 당면과제인 민족해방이라는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 여성 유학생들의 해외 유학의 동기 및 배경, 유학 장소에서의 학습 내용과 귀국 후의 사회 활동연구를 통해 당시 여성들의 지위 향상 및 구국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연구는 동아시아 여성 유학생에 대한 전면적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근대 동아시아 여성들의 일본 및 미국 유학에 대한 기초연구와 더불어 여성 유학생 개개인에 대한 기초조사를 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으로 커다란 의의가 있습니다.

2010

### 제2회 수상자

#### 서강대학교 사학과 최기영 교수

##### 1920~30년대 유기석의 재종독립운동과 아나키즘

1920~30년대 중국에서 활동한 한인 아나키즘 운동의 선봉 유기석의 일생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재종독립운동과 아나키즘의 상관관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재조명한 연구입니다. 본명보다 유서, 유수인

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으며 국내보다 중국에서 명성이 높았던 유기석은, ‘재중국조선무정부공산주의자연맹’, ‘남화한인청년연맹’과 같은 아나키즘 운동 단체를 조직하고, 한·중·일 아나키스트 연대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해방 이전에는 한국 독립 운동을 위해 헌신했고, 해방 이후에는 강소사범학원 역사계 교수로 재직했던 그는, 조국과 민중, 국가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투쟁했던 ‘민족적 아나키스트’이자 출중한 독립 운동가였습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함동주 교수

##### 다이쇼기 일본의 근대적 생활 경험과 이상적 여성상

##### ~〈주부지우(主婦之友)〉를 중심으로

다이쇼 시대(1912~1926)는 정치적으로는 민주화, 경제적으로는 산업화가 폭넓게 진전되면서 일본이 본격적인 근대사회의 면모를 갖추게 된 시기입니다. 당시 산업화와 더불어 도시화가 두드러지게 진행되면서 여성들의 삶도 전통적 가정생활과는 다른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가정’의 출범과 더불어 새로운 생활 체계가 형성되고 서양 문화의 유입이 확산되면서 일본 주부들의 롤 모델로 서양 주부가 전면에 등장한 것입니다. 이번 연구는 이 같은 도시화와 여성상의 변화를 〈주부지우〉라는 주부 대상 잡지를 통해 짚어봄으로써, 다이쇼 시기 일본의 근대적 생활 경험의 다양한 실태와 역사·문화적 의미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2011

### 제3회 수상자

####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구범진 교수

##### 조선과 명·청의 외교문서 독법 연구

당시 외교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방대한 규모의 외교 사료가 전하고 있음에도 특수 용어가 많아 그 정확한 내용을 추론하기가 어려웠던 데 착안한 연구로, 조선과 명·청의 외교문서 독법 연구를 통해 조선이 중국의 명·청 두 왕조와 주고 받은 외교문서들을 정확히 독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조선시대 국제 관계를 연구하는 외교사·한국사 연구자들이, 현존 외교 사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토대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또한 〈이문(吏文)〉, 〈사대문계(事大文軌)〉 등에 게재된 명·청의 외교문서를 업선하고, 선정된 자료들을 기존의 문장 해석 형태가 아니라 문서 구조에 맞춰 해석함으로써 외교문서 독법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 고려대학교 사학과 민경현 교수, 조명철 교수

##### 러일전쟁의 종결과 한국 문제

러일전쟁으로 이어지는 국제 정세의 격변 속에서 일본의 침탈을 받아 보호국 신세로 전락하고 마는 한국의 상황을, 러시아사 전공 교

수와 일본사 전공 교수의 공동 연구를 통해 국제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조망한 연구입니다. 기존의 연구가 일본의 침략주의를 밝힘에 있어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만 치중해왔던 데 반해, 한국을 둘러싼 동아시아라는 국제사회의 정황을 토대로 당시 역사를 새롭게 재해석함으로써 한국을 둘러싼 동아시아의 역사상을 새롭게 구축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당시 한국을 둘러싼 국제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구미 열강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객관적으로 알아보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뿐 아니라, 일본의 침략 정책을 국제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데도 보다 높은 객관성을 획득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2012

### 제4회 수상자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남동신 교수

##### 〈금석청원〉 연구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금석청원〉 10권은 조속(趙速)이 17세기 중반 우리나라의 역대 금석문 탁본을 모아 편찬한 것으로, 현존하는 탁본첩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특히 〈금석청원〉은 고대와 고려의 금석문 연구뿐 아니라 조선 후기 사대부 문화 연구에 탁월한 사료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료로, 이번 연구를 통해 〈금석청원〉과 직접적인 영향관계에 있는 〈대동금석첩〉(일본 천리대 도서관 소장) 7권을 비교·검토하고, 〈금석청원〉에 수록된 탁본을 〈조선 금석총람〉 등과 비교함으로써, 한국 고대 및 중세 금석문의 전체 목록 및 판독문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목록도 없고, 서발문도 따로 전하는 〈금석청원〉의 체계를 재구성함으로써 향후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았습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조지형 교수, 백옥경 교수

##### 강리도, 세계 현존 최고의 아프로유라시아 지도 연구

1402년 조선에서 제작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이하 ‘강리도’)는 아프로유라시아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지도라는 점에서 중대한 세계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강리도’(일본 류코쿠대학 소장본)를 직접적인 연구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지명 확인 및 실제적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강리도’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강리도’에 표시된 아프리카 최남단 지역에 비교사적·지구사적 연구를 적용, 근대의 시작을 ‘대항해시대’에서 찾는 유럽중심주의적 시각을 비판적으로 성찰하였습니다. 또한 ‘강리도’와 ‘대명혼일도’의 비교를 통한 현존 최고성 확인과 아프리카 최남단을 표기한 15~16세기 다른 세계지도와 ‘강리도’의 비교 연구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산출하고, 그 성과를 국내외 학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공유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2013

### 제5회 수상자

#### 중국 국립 푸단(復旦)대학교 중국어학 강은지 박사

##### 상하이 지역 이민사를 통해 본 언어문화 변천 모델 연구

상하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이민, 특히 식민지화를 통한 이민이 많았고, 지금도 경제중심도시로의 이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다민족, 다언어 사회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상하이 방언과 언어 사용자들의 복잡성까지 더해져 언어문화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상하이 지역의 이민사와 언어문화의 변천 과정과 그 관계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연구는 3년간 진행되며 첫 해에는 상하이 지역의 근, 현대 이민사와 언어변천, 생활문화의 변동에 관한 자료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에는 상하이에서 실제 언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1:1면접과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데이터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언어 사용과 태도 연구를 진행합니다. 이번 연구는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도 곧 겪게 될 다문화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대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PEOPLE WHO PLAYED A KEY ROLE IN THE DEVELOPMENT OF FUNDAMENTAL STUDIES

2009

### 1ST RECIPIENTS

#### Prof. Choi Yoon-oh, Dept. of History, Yonsei University

##### A Study on the Formation of and Changes in Historical East Asian Urban Areas

This study looked at how the long-term devolution of Korean farming villages and the subsequent population increase in Seoul (then known as Hanyang) influenced the modernization of the country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Specifically, it examined how Seoul and its markets were reorganized in the late Joseon era, when traditional markets faced competition from products made by Western imperial powers. This was done through the expansion/decline of distribution networks among markets and seaports. In addition, the study comparatively analyzed the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the declining number of farmers and the increasing number of manual laborers due to the



development of urban centers, while also examining what cities and farming villages used to be like and how farming villages began devolving in the late Middle Ages.

- **Prof. Chung Hye-jung, Dept. of History, Ewha Womans University**  
**Women Who Studied Abroad and Their Social Impact on Modern East Asia**

This study looked at East Asian (mainly Korean) women who studied overseas and the effect they had on society upon their return to their native country from the late 19th to mid-20th century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Basic information and statistics on East Asian women who had the opportunity to study in another country were also presented through this study. By investigating these women’s motives and background, as well as where and what they studied while abroad and what kind of social activities they took part in after returning home, it became possible to examine how those women tried to improve their own status and/or provide assistance for their countries. Up until Professor Chung’s study, there had been no full-scale study on females from East Asia who studied in other countries. This is one of the reasons the study was so unique, in that it detailed the basic research carried out on individual female students who studied abroad in addition to basic information and statistics on East Asian women who studied in Japan and the U.S. in modern times.

- 2011
- 2ND RECIPIENTS
- **Prof. Choi Ki-young, Dept. of History, Sogang University**  
**Ryu Ki-seok’s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in China in the 1920s & 1930s and Anarchism**

Professor Choi’s study shed new ligh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in China and anarchism during the Japanese ruling era, with a specific focus on Ryu Ki-seok, a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leader in China during the 1920s and 1930s. Widely known by the pseudonyms Liu Xu and Liu Shuren, Ryu was more famous in China than Korea back in his day. He organized anarchist organizations such as the Chinese Federation of Anarchist Korean Communists, and the Nanhua Federation of Korean Youth. He also played an active role in the Korea-China-Japan anarchist solidarity movement. After Korea’s liberation from Japan, he worked as a history professor at Jiangsu Teachers’ College.

- **Prof. Ham Dong-ju, Dept. of History, Ewha Womans University**  
**Life in the Daisho Period and the Ideal Image of a Woman as Seen through A Housewife’s Friend Magazine**

The Daisho period (1912-1926) was a time when Japan starting exhibiting aspects of a modern society in earnest. Democracy and industrialization were taking firm root at the time. As urbanization moved forward alongside industrialization, women’s lives began to change from what they were in traditional families. Urban families brought with them new lifestyles, and as Western culture became more and more influential, European and American housewives emerged as role models for many Japanese housew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hed light on various aspects and the historic/cultural meaning of modern life in Japan during the Daisho period by examining the urbanization of society and changes in the ideal image of women through a magazine called *A Housewife’s Friend*.

- 2011
- 3RD RECIPIENTS
- **Prof. Koo Bum-jin, Dept. of Asi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A Study on the Ways of Reading Diplomatic Documents from the Joseon, Ming, and Qing Dynasties**

Although there is a huge amount of extant materials from hundreds of years ago that details diplomatic efforts between Korea and China,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precise nature of certain material because of the language used in these documents. By studying the terms related to diplomatic documents at the time, this study offered a means to understand diplomatic exchanges between Joseon-era officials and their counterparts in China during the Ming and Qing dynasties. This study is also expected to help provide an important foundation for future researchers to make full use of existing diplomatic materials when looking into Joseon’s international relations. By carefully selecting diplomatic documents and then explaining their specific structures from the past, this study has opened a new window of insight onto Korean and Chinese diplomatic documents.

- **Prof. Min Kyung-hyun & Prof. Cho Myung-chul, Dept. of History, Korea University**  
**The Effect of the Russo-Japanese War on Korea**

In the midst of the rapid changes which took place on the international stage and contributed to the outbreak of the Russo-Japanese War, Korea was

deemed a “protected” country by Japan. Min, a professor in Russian history, and Cho, a professor in Japanese history, carried out the study together and looked at the situation from an objective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 While existing studies usually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when delving into Japan’s aggressiveness, this study reexamined events from the timeline based on the realities of international politics in East Asia at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which has helped establish a more precise and factual viewpoint of East Asian history. This study provides immensely useful information dealing with Western powers and their awareness of Korea back then, as well as discussing Japan’s expansionist policy in an objective way.

- 2012
- 4TH RECIPIENTS
- **Prof. Nam Dong-shin, Dept. of Kore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A Study on *Geumseokcheongwa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has in its possession 10 volumes of *Geumseokcheongwan*, a collection of epigraph stone rubbings in Korean compiled by a Korean painter and calligrapher named Jo Sok in the mid-17th century. This is the oldest extant collection of epigraph stone rubbings. *Geumseokcheongwan* is especially well known as an invaluable historical material when studying epitaphs from centuries and millennia ago, as well as information about the late Joseon dynasty’s nobility. This study compared seven volumes from *Daedonggeumseokcheop* with *Geumseokcheongwan* (which it is directly related to and is today housed in Japan’s Tenri University’s library) and other similar collections of stone rubbings. This study corrected and complemented previous lists that sought to decipher Korea’s epitaphs from ancient times and the Middle Ages. Furthermore, the study provided additional basic material that can be used by researchers in related fields by reorganizing the structure of *Geumseokcheongwan*, which up until now did not have any proper accompanying lists with its preface and introduction, which were separated from the collection itself.

- **Prof. Cho Ji-hyeong & Prof. Baek Ok-kyung, Dept. of History, Ewha Womans University**  
**A Study on Gangnido: The World’s Oldest Afro-Eurasian Map**

Created by Koreans in 1402, the Honil Gangni Yeokdae Gukdo Jido (“Map of the Integrated Lands and Regions of Historical Countries and Capitals”), and often abbreviated as Gangnido (or Kangnido), is one of the oldest surviving world

maps we have today. This study focused on the map now housed at Japan’s Ryukoku University, shedding light on Gangnido in new and important ways through field surveys. Professors Cho and Baek critically examined previously held Europe-oriented views of looking at the early modern era in the age of maritime expansion by applying comparative research on the southernmost parts of Africa, which is marked on Gangnido. After comparing Gangnido with other world maps from the 15th and 16th centuries, which showed the southernmost parts of Africa, results from the study were shared with scholars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 2013
- 5TH RECIPIENT
- **Kang Eun-ji, Ph.D., Dept. of Chinese Language, Fudan University**  
**A Study on Changes in Language Models as Seen through Immigrants in Shanghai**

Historically, Shanghai has had a lot of immigrants, especially through colonization. Today, the area is a multiracial, multilingual society with wave upon wave of people migrating there due to its economic influence. Throughout China, many people use Mandarin, as it is the official language, but some people, especially in Shanghai, use Shanghainese, too. What’s more is that language—and everything connected to it—is constantly changing there. The study paid attention to the history of immigration in Shanghai, changes in languag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In the first year of the three-year study, Kang will collect data related to changes in language, lifestyle and culture in connection with the history of immigration in the Shanghai region. Then, she will travel to Shanghai and carry out research on how people actually deal with their linguistic reality through one-on-one interviews and surveys. This study is expected to help Korea get prepared for and solve communication problems in a more multicultural society.

# FULL LIST OF PONY CHUNG SCHOLARSHIP RECIPIENTS

## 역대 포니정 장학생 명단

에콰도르로 처음 수출을 하며 우리가 보낸 것은 단지 다섯 대의 포니뿐만은 아니었다. 포니를 선적한 컨테이너선이 드넓은 태평양을 건너는 동안 세계를 향한 우리의 꿈, 오대양 육대주를 향한 현대의 야망도 함께 실려 갔던 것이다.

- 1976.07. 정세영 명예회장

When we first exported automobiles to Ecuador, what we sent were not just five Hyundai Ponies. As the container shipped with the Ponies crossed the massive expanse of the Pacific Ocean, it carried with it not just our dreams, but Hyundai's global ambitions. - Chung Se-yung, July 1976

### 청년이여, 꿈을 가져라!

꿈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난관에 부딪혔다고 주저앉는 법도 없습니다. 다시 일어설 기회를 모색하고,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방법을 찾습니다. 1967년 12월, 미국 포드 자동차와의 합작 회사로 출발했던 현대자동차가 고작 7년여 만인 1974년, 고유모델 포니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973년 포드와의 합작이 깨어진 후, 정세영 명예회장이 “우리의 살 길은 고유모델 개발뿐이다” 부르짖었을 때도, “우리는 이때까지 포드에서 만들어준 조립용 도면도 하나 제대로 옮길 수 있는 기술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바디를 설계하느냐” 되물으며 반대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세영 명예회장은, “나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길인데, 이걸 안 가면 나는 죽겠고 그러니까 나는 가야겠다”고 다짐하며 포니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토리노 국제 모터쇼에 포니를 출품, 세계 언론과 자동차 업계의 탄성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이때의 감회를 정세영 명예회장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탈리아 토리노 모터쇼는 포니에게는 잊지 못할 데뷔 무대였으며, 나에게서는 세계를 향해 첫발을 내딛게 해준 희망의 발원지였다.”

### 절실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정세영 명예회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유모델 개발이 아닌 수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유모델을 만들어야지, 우리 마음대로 수출을 할 수 있다. 이 벽을 뚫지 않으면, 우리 회사는 생존할 수 없다. 살기 위해서 죽으나 사나 해야겠다”고 다짐할 정도로 수출은 정세영 명예회장에게 반드시 완수해야 할 지상과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제는 훌륭하게 완수되었습니다. 1976년 에콰도르 수출을 시작으로, 현대자동차는 오대

양 육대주로 뻗어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꿈은 ‘반드시 이루어야겠다’는 절실함을 동반할 때 그 힘이 배가 됩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정세영 명예회장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도 절실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세영 명예회장의 꿈을 이어받은 포니정 재단이 젊은 인재들의 꿈을 응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다면, 그리고 이를 실현하고 싶다는 절실함과 강한 의지만 있다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포니정 재단은 앞으로도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이 자신의 꿈을 활짝 펼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겠습니다. 포니정 장학금은 높은 이상과 꿈, 포부를 가진 젊은 인재들,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 DARE TO DREAM!

A dreamer never gives up. Dreamers do not become frustrated in the face of difficulties or challenges, and instead search for opportunities to rise yet again as they realize their dreams. In December 1967, Hyundai Motor Company started its operations as a joint venture with Ford. At the time, nobody could foresee that Hyundai would release its own car model, the Pony, in 1974—just seven years later. When the collaboration with Ford ended in 1973,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 declared, “The only way for us to survive is to develop our own car model independently.” However, many of those around him objected to his plan, asking how Hyundai could ever design an automotive body while the company was still having difficulty in creating a Henry Ford-like assembly line. Still, Chung was determined to develop the Pony, and in 1974 the car was unveiled for the world to see at the Turin International Motor Fair, where it was well received by the world's press and automotive industry. Recalling that time, Chung said, “The Turin International Motor Fair was an

unforgettable stage for the Pony to be debuted, not to mention a source of hope in allowing me to take my first step toward the world.”

## STAY TRUE TO YOUR DREAMS AND THEY ARE BOUND TO COME TRUE

That was just the beginning, though. Chung's ultimate goal was not just the independent development of Hyundai's own car model, but to export it around the world. As he once put it, “We need to make our own car model in order to export automobiles the way we want to. Hyundai won't survive without making our very own cars. Thus, for the simple sake of survival, this needs to be done no matter what.” Exporting automobiles was a huge undertaking for

## PONY CHUNG SCHOLARSHIP STUDENTS, DOMESTIC 포니정 국내 장학생

### 1기 포니정 장학생 (33명)

2006년 선발 / 2007년 장학금 지급

성명	학교	전공
강민구	충북대학교	토목
국정근	전북대학교	건축
권오훈	한양대학교	토목
김경태	고려대학교	토목
김로사	서울대학교	건축
김무광	부산대학교	토목
김상범	연세대학교	토목
김우주	서울대학교	건축
김은성	한양대학교	건축
김창환	부산대학교	건축
김호택	강원대학교	토목
두병혁	전북대학교	토목
박성기	연세대학교	건축
박승범	충남대학교	토목
박준현	충남대학교	토목
박진석	경북대학교	건축
배태현	경북대학교	건축
안지훈	전남대학교	건축
윤진수	한양대학교	토목
이경무	전남대학교	건축
이민표	충북대학교	건축
이소피아	서울대학교	토목
이제원	연세대학교	건축
이준희	충남대학교	건축
임용규	전남대학교	토목
장윤덕	충북대학교	건축
전중갑	강원대학교	건축
정경인	고려대학교	토목
조현근	경북대학교	토목
진성현	부산대학교	토목
채수환	전북대학교	토목
최용훈	강원대학교	토목
홍경아	고려대학교	건축

1기 포니정 장학생 지급 총 금액 - 1억 8,605만 원

Chung, yet the task was brilliantly executed when Hyundai Motor Company eventually started exporting automobiles to Ecuador in 1976. Clearly, the power to dream is only strengthened when accompanied by an individual's unrelenting determination. Chung Se-yung's dream, which looked impossible to many, came true because of such a determination. Since its foundation, the Pony Chung Foundation has believed wholeheartedly in Chung's belief to support young people's dreams. Ultimately, a dreamer is never poor. Any person with a dream—and the determination to see it through to the end—will see that dream come true. The Pony Chung Foundation will continue to support and encourage young talents so that they pursue their dreams to the very end. Pony Chung scholarships exist today for young talents with admirable ideals and ambition.

### 2기 포니정 장학생 (33명)

2007년 선발 / 2008년 장학금 지급

성명	학교	전공
강민구	충북대학교	토목
강수진	전남대학교	건축
고승세	한양대학교	건축
국정근	전북대학교	건축
김경태	고려대학교	토목
김로사	서울대학교	건축
김무광	부산대학교	토목
김상범	연세대학교	토목
김창환	부산대학교	건축
김형구	충북대학교	건축
김호택	강원대학교	토목
박성진	강원대학교	건축
박승범	충남대학교	토목
박진규	서울대학교	건축
박진석	경북대학교	건축
박춘구	한양대학교	토목
백초롱	부산대학교	건축
안지훈	전남대학교	건축
윤진수	한양대학교	토목
이동현	전북대학교	토목
이소피아	서울대학교	토목
이재민	경북대학교	건축
이준희	충남대학교	건축
이상현	연세대학교	건축
임수연	충남대학교	건축
임용규	전남대학교	토목
장윤덕	충북대학교	건축
전찬경	강원대학교	토목
정다영	연세대학교	건축
조현근	경북대학교	토목
채수환	전북대학교	토목
홍경아	고려대학교	건축
하상희	고려대학교	토목

2기 포니정 장학생 지급 총 금액 - 1억 9,837만 원



3기 포니정 장학생 (24명)

2008년 선발 / 2009년 장학금 지급

성명	학교	전공
김정란	한양대학교	사학
노수영	이화여자대학교	사학
류찬호	고려대학교	사학
문성진	한양대학교	건축
민혁준	고려대학교	건축
박상훈	연세대학교	건축
박수연	연세대학교	건축
박은영	서강대학교	사학
박초롱	이화여자대학교	사학
박춘구	한양대학교	토목
배수정	서울대학교	사학
손진배	서울대학교	토목
여선영	서강대학교	사학
유지민	한양대학교	사학
이문섭	연세대학교	토목
이준혁	한양대학교	건축
장재경	연세대학교	사학
전다맥	서울대학교	건축
정다솜	서울대학교	사학
조규연	서울대학교	건축
조현민	연세대학교	사학
조혜영	고려대학교	사학
최시훈	고려대학교	건축
하상희	고려대학교	토목

3기 포니정 장학생 지급 총 금액 - 1억 8,255만 원

4기 포니정 장학생 (24명)

2009년 선발 / 2010년 장학금 지급

성명	학교	전공
강지호	고려대학교	건축
김상우	서울대학교	건축
김예은	한양대학교	건축공학
김은지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
김진영	연세대학교	토목, 환경공학
김현중	연세대학교	건축공학
노수영	이화여자대학교	사학
박가현	한양대학교	사학
박상훈	연세대학교	건축
박호철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
서명석	한양대학교	토목공학
손상우	고려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
이나영	연세대학교	건축
이주영	연세대학교	사학
이준혁	한양대학교	건축공학
이홍빈	서강대학교	사학
전다맥	서울대학교	건축
정성훈	서울대학교	동양사
조성민	한양대학교	역사학
조혜영	고려대학교	한국사
주수향	서강대학교	사학
최선영	이화여자대학교	사학
최정흠	고려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
한준희	고려대학교	건축

4기 포니정 장학생 지급 총 금액 - 1억 9,322만 원

5기 포니정 장학생 (30명)

2010년 선발 / 2011년 장학금 지급

성명	학교	전공
강명준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
강지호	고려대학교	건축
김영섭	한양대학교	건축
김효종	고려대학교	사학
남기정	이화여자대학교	사학
도은수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
박가현	한양대학교	사학
박관호	한양대학교	건축
박다해	이화여자대학교	사학
박선영	연세대학교	토목환경공학
박시연	서울대학교	동양사
박진석	한양대학교	토목공학
백다해	이화여자대학교	사학
서영수	서울대학교	건축
신재희	서울대학교	건축
양아름	서강대학교	사학
원상현	서울대학교	건축공학
이나영	연세대학교	건축공학
이대진	연세대학교	토목환경공학
이용훈	연세대학교	사학
이제언	한양대학교	사학
이현경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
이홍빈	서강대학교	사학
장성욱	한양대학교	건축공학
전선영	서강대학교	사학
조윤민	서울대학교	국사
최윤주	고려대학교	건축
하수현	연세대학교	토목환경공학
한경애	고려대학교	한국사
홍성봉	연세대학교	사학

5기 포니정 장학생 지급 총 금액 - 2억 3,901만 원

6기 포니정 장학생 (30명)

2011년 선발 / 2012년 장학금 지급

성명	학교	전공
고영우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
김두훈	서강대학교	철학
김세진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
김현아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
남상기	연세대학교	건축공학
남연경	이화여자대학교	철학
박관호	한양대학교	건축학
박선아	서강대학교	사학
박주연	이화여자대학교	철학
사회동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
손현선	이화여자대학교	사학
송호권	한양대학교	건축공학
안은선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
유설희	고려대학교	철학
윤성식	연세대학교	토목환경공학
윤창민	연세대학교	사학
윤호식	연세대학교	철학
이광석	한양대학교	건축학
이선민	연세대학교	토목환경공학
이용운	서울대학교	동양사학
이윤수	고려대학교	철학
이제언	한양대학교	사학
이진철	한양대학교	철학
임복규	서강대학교	사학
장준수	고려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
정수호	서울대학교	건축공학
조예린	서울대학교	건축공학
최유빈	연세대학교	건축공학
최형호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
한경석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

6기 포니정 장학생 지급 총 금액 - 2억 3,426만 원

D

7기 포니정 장학생 (30명)

2012년 선발 / 2013년 장학금 지급

성명	학교	전공
고홍주	서강대학교	철학과
구건희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과
김미혜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김봉균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김지혜	고려대학교	철학과
남상기	연세대학교	건축학과
박병규	서강대학교	사학과
손민재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과
안태욱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과
우회원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유환	서울대학교	철학과
윤창민	연세대학교	사학과
이주영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과
이상구	연세대학교	철학과
임경민	연세대학교	건축학과
정다운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정덕원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정소망	서강대학교	철학과
조예린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진민지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차윤지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채현철	한양대학교	사학과
최규현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최돈영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최민철	고려대학교	철학과
최유빈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최지웅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표상록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허다운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황인영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7기 포니정 장학생 지급 총 금액 - 2억 3,020만 원

예술 분야 특별 장학생

한국예술종합학교 피아노과 김준희

포니정 재단은 2008년 포니정홀 개관에 맞춰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 분야 인재를 육성하고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예술종합학교 피아노과 김준희 학생을 예술 분야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 3년간 장학금과 연주비를 후원했습니다. 김준희는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피아니스트로서의 길을 훌륭히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 총 금액 - 6,200만 원

ART SCHOLARSHIP

Kim Jun-he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Commemorating the grand opening of Pony Chung Hall in May 2008, the Pony Chung Foundation created a special art scholarship program to provide support for the science of the arts and helping foster talents that will grow to represent Korea proudly in the future. From 2008 to 2010, the foundation supported Kim Jun-hee, a student at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with scholarships and the sponsorship of recitals. Currently, Kim is well on his way to becoming a globally renowned pianist.

Total amount awarded - KRW 62 million

PONY CHUNG SCHOLARSHIP STUDENTS, VIETNAM

포니정 베트남 장학생

D

2007 PONY CHUNG SCHOLARSHIP STUDENTS, VIETNAM (20 STUDENTS)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o Chi Minh City, 20 students

Name	Major
Nguyen Thi Qui	Construction Technology and Management
Nguyen Anh Thu	Civil Engineering
Phan Luu Minh Phuong	Civil Engineering
Nguyen Thanh Van	Construction Materials
Dinh The Hung	Civil and Industrial Engineering
Tran Thai Minh Chanh	Civil and Industrial Engineering
Le Luong Bao Nghi	Civil and Industrial Engineering
Tran Vinh Loc	Civil and Industrial Engineering
Nguyen Thi Thu Thao	Civil Engineering
Huynh Ngoc Thi	Transportation Engineering
Bui Phuong Trinh	Civil Engineering

D

2008 PONY CHUNG SCHOLARSHIP STUDENTS, VIETNAM (60 STUDENTS)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o Chi Minh City, 30 students

Name	Major
Nguyen Anh Thu	Construction Technology and Management
Le Luong Bao Nghi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Tran Quoc Toan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Tran Duc Hoang Viet	Geotechnical Engineering
Bui Phuong Trinh	Construction Materials
Do Tien Sy	Construction Technology and Management
Huynh Ngoc Thi	Bridge and Tunnel Engineering
Nguyen Quang Truong	Water Resources Engineering
Chau Phuong Khanh	Mapping, Remote Sensing and Gis
Nguyen Trong Khanh	Mapping, Remote Sensing and Gis
Le Thanh Tuyen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Nguyen Thanh Tuan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Le Nhurt Truong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Dang Ngoc Canh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Dang Ngoc Loi	Bridge and Highway
Dang Thanh Hoai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Nguyen Thanh Loc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Nguyen Thanh Nghia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Nguyen Van Anh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Le Minh Tien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Do Ba Trong	Bridge and Highway
Hoang Cong Luan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Nguyen Tan Cuong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Tran Huy Toan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Dang Ngoc Toan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Ha Duy khanh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Nguyen Trung Kien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Tran Duy Khanh	Bridge and Highway
Tran Trong Tri	Construction Materials
Tien Chi Long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Name	Major
Tran Duc Hoang Viet	Department & Civil Engineering
Le Hoang Thanh Nam	Civil Engineering
Dinh Quoc Bien	Civil Engineering
Huynh Thanh Canh	Civil Engineering
Nguyen Khac Dung	Civil Engineering
Vo Minh Ho	Civil Engineering
Nguyen The Truong Phong	Civil Engineering
Nguyen Khuong Tin	Civil Engineering
Le Tien Trung	Civil Engineering

Total amount awarded for 2007 - USD 10,000 (USD 500 per student)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30 students

Name	Major
Le Anh Tin	Pedology
Vu Thuy Linh	Meteorology Hydrology & Oceanography
Vu Van Minh	Geology
Nguyen Thi Thanh Hoang	Geography
Nguyen Van De	Geology
Nguyen Thi Thu Trang	Literature
Nguyen Dinh Hau	Journalism & Communication
Nguyen Thi Dung	Tourism
Nguyen Thi Dinh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Nguyen Tuan Anh	Psychology
Le Hong Hanh	Russian Language & Culture
Dao Van Huynh	French Language & Culture
Ta Thi Thanh Tam	French language & culture
Chu Thi Phuong Nhung	German language & culture
Nguyen Thu Ha	German Language & Culture
Nguyen Thuy Duong	Chinese Language & Culture
Le Huy Tuan Technical	Mechanics
Ho Thi Anh	Technical Physics
Nguyen Van Chien	Technical Physics
Nguyen Thi Dung	Political Economy
Phung Thi Hien	Political Economy
Bui Due Tien	Faculty of Law
Vu Thi Luyen	Faculty of Law
Pham Thi Nhai	Chemistry Education
Nguyen Hoang Yen	History Education
Du Vu Viet Quan	Geography
Tran Anh Tuan	Rational use of Natural resources
Nguyen Thi Hue	Psychology
Ngo Thi Minh Thu	Russian Language & Culture
Bui Dinh Tu	Micro-Nano

Total amount awarded for 2008 - USD 30,000 (USD 500 per student)





2009 PONY CHUNG SCHOLARSHIP STUDENTS, VIETNAM (60 STUDENTS)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o Chi Minh City, 30 students	
Name	Major
Nguyen Hoang Tuong Nhu	Civil Engineering
Nguyen Ba Quang Vinh	Civil Engineering
Dinh Quoc Bien	Civil Engineering
Vang Hieu Quang	Civil Engineering
Nguyen Tan Tien	Civil Engineering
Nguyen Tan Cuong	Civil Engineering
Nguyen The Truong Phong	Civil Engineering
Pham Minh Tue	Civil Engineering
Lam Vu Ngo Hung	Civil Engineering
Hoang Xuan Duc	Civil Engineering
Nguyen Minh Tri	Mechanical Engineering
Phan Thanh Duong	Electrical & Electronic
Nguyen Xuan Binh	Electrical & Electronic
Le Hong Khiem	Electrical & Electronic
Bui Duc Tai	Chemical Technology & Petroleum
Pham Toan Thuc	Chemical Technology & Petroleum
Vu Huong Van	Chemical Technology & Petroleum
Lam Ngoc An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Hoang Khanh Hung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Tran Quoc Huy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Dang Ngoc Canh	Civil Engineering
Nguyen Van Khanh	Mechanical Engineering
Le Hoang Thanh Nam	Material Engineering
Nguyen Trong Khanh	Geology and Petroleum Engineering
Huynh Ngoc Thi	Civil Engineering
Tran Duc Hoang Viet	Geology and Petroleum Engineering
Bui Phuong Trinh	Material Engineering
Phan Dinh Tuan	Mechanical Engineering
Truong Tuan Anh	Computer Science
Phan Dinh Khoi	Computer Science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30 students	
Name	Major
Dang Thi Ngoc Anh	College of Science
Nguyen Van Tang	College of Science
Pham Hoai Thu	College of Science
Ngo Thi Huyen Trang	College of Science
Trinh Thi Kieu Trang	College of Science
Dang Van Doan	College of Science
Tran Anh Tuan	College of Science
Mai Linh	College of Social Sciences & Humanities
Nguyen Thi Anh Hong	College of Social Sciences & Humanities
Le Hong Nhung	College of Social Sciences & Humanities
Vu Thi Ngoan	College of Social Sciences & Humanities
Le Thi Bich Phuong	College of Social Sciences & Humanities
Nguyen Son Minh	College of Social Sciences & Humanities
Nguyen Hai Ha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Nguyen Thi Ngoc Diep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Nguyen Thi Dung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Chu Thi Luong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Nguyen Thi Huong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Nguyen Thuy Duong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Nguyen Xuan Truong	College of Technology
Vuong Quoc Trung	College of Technology
Tran Bao Thai	College of Technology
Nguyen Van Hiep	College of Technology
Vu Nguyen Thuc	College of Technology
Doan Quoc Dung	College of Economics
Nguyen Thi Mai	College of Economics
Bui Thi Hoai	College of Education
Tran Thi Phuong	College of Education
Nguyen Thanh Ha	Faculty of Law
Le Thi Thu Hang	Faculty of Law

Total amount awarded for 2009 - USD 30,000 (USD 500 per student)



2010 PONY CHUNG SCHOLARSHIP STUDENTS, VIETNAM (60 STUDENTS)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o Chi Minh City, 30 students	
Name	Major
Huynh The Vi	Civil Engineering
Le Thanh	Civil Engineering
Nguyen Tan Tien	Civil Engineering
Ho Anh Tuan	Civil Engineering
Ngo Thanh Nhan	Civil Engineering
Le Nhat Toan	Mechanical Engineering
Tran Van Manh Hung	Mechanical Engineering
Tran Van Linh	Mechanical Engineering
Huynh Thanh Phuc	Mechanical Engineering
Hoang Viet Ha	Electrical & Electronic
Truong Huu Phuc	Electrical & Electronic
Nguyen Thanh Minh	Electrical & Electronic
Do Tien	Electrical & Electronic
Thai Chi Minh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Le Hai Son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Nguyen Thien Tin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Vo Duc Vinh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Dang Thuy An	Industrial Management
Mai Thi Dieu	Industrial Management
Pham Dang Khoa	Material Technology
Trinh Cong Luan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Nguyen The Truong Phong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Nguyen Tan Cuong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Dang Ngoc Canh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Phan Dao Hoang Hiep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Nguyen Trung Kien	Geology and Petroleum Engineering
Nguyen Thanh Tu	Construction Technology and Management
Ho Thi Phuong Dung	Construction Technology and Management
Vang Hieu Quang	Construction Technology and Management
Nguyen Tang Thanh Binh	Bridge and Highway Construction Civil Engineering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30 students	
Name	Major
Nguyen Thi Quynh Trang	Geography
Dinh Van Thin	Physics
Nguyen Thi Huyen Trang	Environmental Science
Nguyen Van Huynh	Biotechnology
Pham Dinh Hieu	Mathematical Assurances for Computers and Computing Systems
Nguyen Thi Mai	Oriental Studies
Nguyen Thi Nga Mi	Oriental Studies
Le Thi Ngoc Anh	Library and Information
Nguyen Hai Anh	Philosophy
Pham Van Hue	Psychology
Vu Hai Trang	Science and Technology Management
Nguyen Hong Hanh	Western Languages and Culture
Vu Thi Mai Loan	Korean Languages and Culture
Ngyen Thi Hai Ly	Korean Languages and Culture
Nguyen Thi Tu Linh	French Language and Culture
Nguyen Nhue Giang	English Language Teacher Education
Nguyen Thuy Duong	Chinese Language and Culture
Truong Thi Dung	Theoretics and Russia Teaching Method
Pham Hai Dang	Information Technology
Chu Xuan Cuong	Information Technology
Dang Huu Trien	Mechatronics
Do Thi Hong Hanh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Nguyen Dinh The Anh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Chu Thi Nhung	Development Economics
Trinh Tuan Anh	Business Administration
Vinh Bao Ngoc	International Economics
Le Thi Xuyen	Literature Education
Pham Dinh Luong	Education Management
Nguyen Hong Ngo	Business Law
Pham Thi Hai Yen	Law

Total amount awarded for 2010 - USD 30,000 (USD 500 per student)



2011 PONY CHUNG SCHOLARSHIP STUDENTS, VIETNAM (60 STUDENTS)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o Chi Minh City, 30 students	
Name	Major
Lam Vu Ngo Hung	Civil Engineering
Do Thi Thuy Phuong	Korean Studies
To Ly Diem Truc	Economics
Phan Khoa Thuong Trieu	Medicine
To Ung Vu Information	Technology
Lam Ngoc An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Vo Duc Vinh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Nguyen Phuoc Nguyen	Civil Engineering
Nguyen Phi Gia	Civil Engineering
Nguyen Thien Huynh	Civil Engineering
Nguyen Vu Hoang Giang	Civil Engineering
Truong Thanh Hiep	Civil Engineering
Le Thanh	Civil Engineering
Nguyen Minh Phan	Geography
Nguyen Thi Khanh Ly	Journalism
Nguyen Huu Hien	Cultural Studies
Tran Quang Tanh	Information Technology
Nguyen Cong Thanh	Information Technology
Nguyen Thi Cam	Finance and Banking
Nguyen Thi My Thanh	External Economics
Nguyen Trung Kien	Civil Engineering, Master's Course
Nguyen Tan Cuong	Civil Engineering, Master's Course
Ho Thi Phuong Dung	Industrial System Engineering, Master's Course
Nguyen The Truong Phong	Civil Engineering, Master's Course
Le Hoang Minh	Electronic – Telecom, Master's Course
Nguyen Thanh Trung	Geology, Master's Course
Tran Thi Nhu Hoa	Thin film material, Master's Course
Nguyen Thanh Long	Information Technology, Master's Course
Le Van Chanh	Analysis, Master's Course
Kieu Huu Dung	Analysis, Master's Course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30 students	
Name	Major
Hoang Thi Le Nhung	Meteorological Oceanographic
Nguyen Huyen Trang	Geography
Doan Thi Kim Anh	Geography
Dinh Nhu Chien	Chemistry
Vu Son Tung	Physics
Dang Van Doan	Chemistry
Ngo Duc Tinh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Hoang Nghia Thanh	Political Science
Dang Thi Kim Ngan	Philosophy
Hoang Thi Ly	Sociology
Duong Van Thang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Nguyen Thanh Mai	Archive and Office Management
Le Thu Trang	Chinese Language and Culture
Pham Thi Thu Hang	French Language and Culture
Nguyen Thi Quyen	English Language
Vuong Thu Hang	English Language
Mac Thi Kim Oanh	French Language and Culture
Tran Thi Hong Dieu	Information Technology
Pham Hai Dang	Information Technology
Nguyen The Tuyen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an Tuan Minh	Mechatronics Technology
Chu Xuan Cuong	Information Technology
Do Ngoc Chung	Materials engineering and nanotechnology
Nguyen Thi Nhu Ngoc	Banking - Finance
Chu Thi Nhung	Economic Development
Pham Van Anh	Business Administration
Nguyen Van Phan	Education Mathematics
Nguyen Thi Thanh Tam	Education Management
Le Thi Nga	Law
Dang Ngoc Ha	Vietnamese Study

Total amount awarded for 2011 - USD 30,000 (USD 500 per student)



2012 PONY CHUNG SCHOLARSHIP STUDENTS, VIETNAM (60 STUD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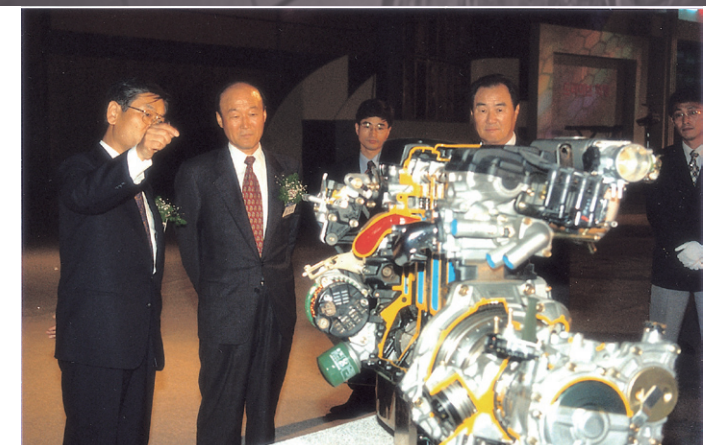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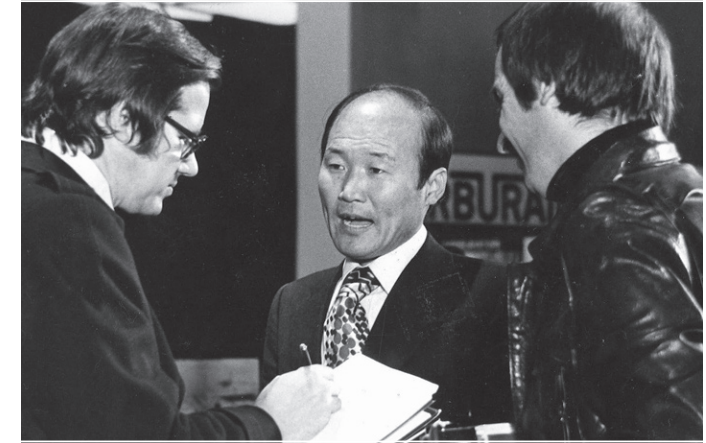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o Chi Minh City, 30 students	
Name	Major
Nguyen Trong Khoa	Information Technology
Tu Nguyen Thai Son	Mathematics & Informatics
Pham Thuong Hai	Computer Science
Vo Hoai Len	Information Technology
Nguyen Ngoc Hien	Computer Science
Ly Trong Nhan	Computer Networking
Le Duc Thien Vuong	Electrical & Electronics Engineering
Nguyen Dinh Huy	Mechatronics Engineering
Tran Thi Phuong Loan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Nguyen Thi Tuyet Mai	Urban Studies
Nguyen Thi Nu	Education
Nguyen Ngoc Chau Sang	Computer Science
Doan Anh Dung	Information Technology
Tran Thanh Nhat	Civil Engineering
Nguyen Quang Dieu	Civil Engineering
Tran Nguyen Minh Tri	Civil Engineering
Nguyen Thi Chung	Civil Engineering
Nguyen Van Ut	Civil Engineering
Le Thi Thu Hang	Civil Engineering
Le Van Tu	Civil Engineering
Pham Chi Cuong	Math & Computer Science
Nguyen Cao Luan	Chemistry
Do Minh Huy	Chemistry
Le Quoc Hoa	Computer Science
Chau Hong Hoa	Chemistry
Nguyen Xuan Thuan	Electronics & Telecommunications
Hoang Nam Hai	Biology
Hua Vy Ngoc Anh	Probability Theory &Statistics
Nguyen Hoang Lam	Civil Engineering
Pham Ngoc Thoai	Probability Theory &Statistics



2012 PONY CHUNG INVITATION SCHOLARSHIP, VIETNAM (1 STUDENT)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Name	University	Major
Nguyen Huyen Trang	VNU, Hanoi	Nature Resources Management





## 포니정 연보

현대산업개발의 사훈은 근면, 검소, 친애이다.

정직, 성실은 말할 것도 없이 기본적인 덕목

이며, 우연이나 행운을 믿어선 안 된다. 성공

은 쟁취해야 하는 것이지 행운에 기대해서는

결코 이루지 못한다.

-1999.03 정세영 명예회장

01

02

03

04

05

06

07

01. 포니를 최초로 선보인 이탈리아 토리노 국제 모터쇼에서 언론 인터뷰 중인 정세영 명예회장.

02. 1976년 에콰도르에 처음으로 수출된 포니와 함께.

03. 1977년 수출의날 기념식.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석탑산업훈장을 수여받았다.

04. 1996년 정통 스포츠카 티뷰론의 신차 발표회에서.

05. 1987년 현대그룹 회장 취임 기자회견 현장.

06.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함께한 정세영 명예회장.

07. 1995년 7월 베트남 출장 당시 레득안 주석과 면담한 정세영 명예회장.

01.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 giving a press interview at the 1974 Turin International Motor Fair,

where the Hyundai Pony made its international debut

02. In front of the Pony, which was first exported to Ecuador in 1976

03. On the occasion of Export Day in 1977,

Chung Se-yung received the Stone Tower Order of

Industrial Service Merit from President Park Chung-hee.

04. At the official unveiling of the Hyundai Tiburon sports car in 1996

05. At the press conference announcing Chung Se-yung's inauguration as Chairman of the Hyundai Group in 1987 06.

06. Chung Se-yung with U.S. President Ronald Reagan

07. Chung Se-yung at a meeting with Vietnamese President Le Duc Anh on his business trip to Vietnam in July 1995



# PONY CHUNG'S BACKGROUND

Hyundai Development Company believes in hard work, frugality, and kindness. While honesty and diligence are basic virtues all of us should follow, it is important not to rely on chance or luck. Success should be sought after, not expected. Success will never be realized if you depend on luck.

- Chung Se-yung, March 1999



## 꿈과 희망을 남긴 선구자

돌아보면 늘 길 위에 선 삶이었습니다. 온갖 역경이 예견된 길이었지만 마다하지 않았고, 난관을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해외 공사인 태국 파타나-나라티왓 고속도로도, 대한민국 최초의 고유모델 포니도, 그 길 위에서 완성됐습니다. 정세영 명예회장은 그렇게 과감한 추진력으로 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뒤돌아볼 여유가 없었고 돌아볼 수도 없었다. 경영자나 근로자, 한국인이나 외국인, 일단 현대차에 동승한 이상 그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목표달성만이 이상명령이었고 그 외에는 어떤 변명이고 이유고 없었다.” 자서전 <미래는 만드는 것이다>에서 밝혔던 것처럼, 정세영 명예회장은 언제나 꿈과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내달렸습니다.

## 앞선 해안과 남다른 결단력

정세영 명예회장은 또한 남다른 결단력의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 1976년 포니의 본격 생산과 에콰도르 첫 수출 등 기금 박찬 성공에 만족하기는커녕 기술 독립을 위한 과감한 행보를 지속해 나갔습니다. 1978년 2월 외국에 기술 독립의 차원에서 공작기계사업부를 발족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가 자서전에서 “외국 회사들이 기술 유세를 할 때마다 나는 기술 없는 나라, 기술 없는 회사의 설움이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실감할 수 있었다. 정말이지 밥 먹은 게 소화가 안 될 지경이었는데,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다. 마음 같아서는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싶었지만, 그러자니 몇 년이나 걸릴지 알 수 없었다. 기술 연구소나 공작기계사업부 설립의 필요성을 깨달은 것이 바로 그때이다”라고 회고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1984년 2월 국내 최초로 자동차 종합 주행시험장을 준공한 것도, 1998년 10월 국내 최초의 해외 자족형 종합 자동차 공장인 인도공장을 준공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습니다. 언제나 한 발 앞서서 결단을 내렸고, 남이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걸어갔으며, 기술 독립과 수출 우선 등 큰 틀에서 미래를 예견하고 설계했습니다.

## 기본과 원칙 중심의 리더십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정도경영’이라는 원칙과 소신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공평하고 곧은 길을 지향했고, 경영진의 책무를 늘 강조했습니다. 현대그룹 회장 시절 그룹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독이 무너질 때에는 항상 조그만 구멍에서 시작되는 법이다. 경영자가 조금만 책무를 게을리 하면 알게 모르게 기업에는 구멍이 나게 마련이다”라고 말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자신 또한 정직과 성실이라는 기본 덕목에 충실했고, 우연이나 행운 따위는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정세영 명예회장이 이루고자 했던 꿈의 대부분을 현실로 만들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미래를 향해 열린 꿈

평생 창조적 혁신에 몰입했고, 꿈과 미래를 개척했던 정세영 명예회장. 그는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기업경영에만 매진한 참 경영인이었고, 앞선 해안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헌신했던 혁신가였습니다. 비록 2005년 향년 78세로 세

상을 떠났지만, 그가 우리 기업사에 남긴 족적은 오롯합니다. 고유모델 포니의 개발로 대한민국을 16번째 자동차 공업국의 반열에 올려놓았고, 현대자동차를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로 성장시켰습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통해 이 땅에 아파트의 역사를 새로이 창조했고, IPARK로 아파트 브랜드 시대를 열었습니다. 언제나 한 발 앞서 생각하고, 한 발 먼저 달려나갔습니다. 금탑 산업훈장, 국민훈장 목련장, 대영제국 커맨더 장 등은 이 같은 정세영 명예회장의 삶에 바치는 영예로운 현사입니다.

길 위에 선 삶은 이미 막을 내린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그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포니정 재단이 있는 한, 정세영 명예회장이 평생 쌓아온 혁신의 궤적과 가슴에 품었던 꿈은 영원히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1928	강원도 통천 출생
1953	고려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1954	미국 콜럼비아 대학교 입학
1955	미국 오하이오주 마이애미대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이적
1957	미국 오하이오주 마이애미대학교 정치학 석사
1965	현대건설 태국 초대 지점장 부임 및 파타나-나라티왓 공사 주주
1967	현대자동차 설립 및 초대 사장 취임
1974	한국 최초 고유 모델인 ‘포니’로 토리노 국제모터쇼 참가
1976	포니 본격 생산 및 에콰도르에 첫 해외 수출
1977	한·영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1977-1995)
1983	영국 왕실로부터 명예 대영제국 훈장 ‘커맨더 장’ 수훈
1985	금탑 산업훈장 수훈
1986	<뉴욕타임즈>, ‘산업계의 숨은 영웅’ 선정
1986	미국 오하이오주 마이애미대학교 명예 법학 박사
1986	미국에 포니 엑셀 첫 수출
1987	현대그룹 회장 및 현대자동차 회장 취임(1987-1995)
1987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1987-1997)
1991	국내 최초 독자 엔진인 알파 엔진 및 트랜스미션 개발
1993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장(1993-1999)
1995	미국 <오토모티브 뉴스> 선정 ‘아시아 최우수 경영자상’ 수상
1996	연세대학교 명예 경영학 박사
1997	고려대학교 명예 경영학 박사
1998	국민훈장 목련장 수훈
1998	한미협회 회장(1998-2002)
1999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 취임
2005	향년 78세로 영면

## A PIONEER WHO BEQUEATHED ALL HIS DREAMS AND HOPES TO US

Although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 faced adversity at every step of his life, he managed to turn this into opportunities for growth. Korea’s first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 the Pattani-Narathiwat Highway (Thailand), and Korea’s first automobile model, the Pony, were just two of his notable accomplishments. In his autobiography, *The Future Is Made*, Chung wrote, “I never had time to look back on my life. Whether they were managers or plant workers, Koreans or foreigners, achieving goals was of paramount importance and excuses were never an option.” As such, Chung always strove to make his dreams and goals a reality.

## FORWARD-LOOKING INSIGHT AND EXTRAORDINARY DETERMINATION

Chung Se-yung was also a person of extraordinary determination. Even after he proved himself successful in business, which included exporting the Pony to Ecuador in 1976, he never grew complacent but instead worked hard to acquire independent technology for Hyundai. So as not to rely on foreign technology, he launched Hyundai’s Machine Tool Division in February 1978. In his autobiography, he wrote about this, saying, “Whenever foreign companies exercise power over us with their technology, it really hit home with me because it was a sad situation to see a company without any advanced technology. To be honest, it physically affected me, nearly causing indigestion, but I was determined not to give up on our goal. I wanted to develop Hyundai’s very own technology, yet nobody knew how long it would take. That was the moment when I realized we needed to establish an R&D center and a Machine Tool Division at Hyundai.” Later, in February 1984, Chung built Korea’s first automotive proving grounds. Then, in October 1988, he built the first overseas general automotive factory run by a Korean company in India. Chung was consistently making forward-looking decisions earlier than his competitors when it came to important issues such as independent technology and exports.

## LEADERSHIP BASED ON A FAIR BUSINESS PHILOSOPHY

At the same time, he never put aside his beliefs and business philosophy when pursuing a fair, righteous way of doing business, and always emphasized the responsibility management had in business. As chairman of the Hyundai Group, he once said to presidents of Hyundai affiliates, “Even the slightest weakness can bring a bank to its knees. When an executive is just the tiniest bit lazy or neglectful, it can lead to a sizeable flaw within the company.”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 was always honest and hardworking, and someone who did not rely on chance or luck. That is how he made his dreams a reality.

## A LEGACY NOT SOON FORGOTTEN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 was a businessman who focused intently on managing his businesses, an innovator who contributed to Korea’s development with his advanced insight. Although he passed away in 2005 at the age of 77, he left behind a significant legacy with respect to Korean companies. He helped turn Korea into the world’s 16th country able to produce its own automobiles by developing the Hyundai Pony. He also played a huge role in making Hyundai Motor a global automaker. Later, he spearheaded the project to build a Hyundai apartment complex in Apgujeong-dong, Seoul, and later ushered in a new era of apartments with real brand power when he began construction of IPARK apartments throughout Korea. Always one to come up with new ideas and act on them ahead of others, Chung was the recipient of the Gold Tower Order of Industrial Service Merit, the Order of Civil Merit (Mokryeonjang) from the Korean government, and was named an Honorary Commander of the Order of the British Empire (CBE).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s dreams and ambitions did not end when he passed away. The Pony Chung Foundation ensures that his innovative spirit and dreams will live on forever.

1928	Born in Tongcheon, Gangwon-do
1953	Graduated from Korea University with a B.A. in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Relations
1954	Admitted to Columbia University, NY, USA
1955	Transferred to Miami University, Ohio, USA on a full scholarship
1957	Graduated from Miami University, Ohio, USA with an M.A. in political science
1967	Established Hyundai Motor Company and was subsequently inaugurated as its first president
1974	Participated in the Turin International Motor Fair, where Korea’s first independently made automobile model, the Pony, was unveiled
1976	Started mass production of the Hyundai Pony and began exports of the model to Ecuador
1977	Elected Chairman of the Korea-British Economic Cooperation Committee (1977-1995)
1983	Named an Honorary Commander of the Order of the British Empire (CBE)
1985	Recipient of the Gold Tower Order of Industrial Service Merit award from the Korean government
1986	Named one of the <i>New York Times’</i> “Heroes in industry in 1986”
1986	Recipient of an Honorary Doctorate in Law from Miami University, Ohio, USA
1986	Began exporting the Hyundai Pony Excel to the U.S.
1987	Inaugurated as Chairman of the Hyundai Group and HMC (1987-1995)
1987	Elected as Vice Chairman of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1987-1997)
1993	Elected as Chairman of the Korea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1993-1999)
1995	Recipient of <i>Automotive News’</i> Asia’s Top Businessman of the Year award
1996	Recipient of an Honorary Doctorate in Business Administrations from Yonsei University
1997	Recipient of an Honorary Doctorate in Business Administrations from Korea University
1998	Recipient of The Order of Civil Merit (Mokryeonjang) from the Korean government
1998	Elected Chairman of the Korean-American Association (1998-2002)
1999	Inaugurated as Honorary Chairman of the Hyundai Development Company
2005	Passed away (age 77)





지난 1999년 현대산업개발의 명예회장으로 취임한 정세영 명예회장은 현대산업개발에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이라는 소중한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뜻을 이어받은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30여 년간 그래왔듯, 앞으로도 이 땅의 건축문화를 선도하며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선진 기술과 인간 중심적인 건축 문화에 공헌하는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A photograph of a modern building at night. The building has a dark, angular facade with a large, circular glass section that is brightly lit from within, showing multiple floors of office space. A prominent white, curved structural element extends from the building's base. The building is surrounded by trees and other city structures, with streetlights and traffic visible in the foreground.

Busan harbor bridge

2014 PONY CHUNG ANNUAL REPORT